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

-일(영)어의 잔재-

許 椿 *

〈차 례〉

I. 序論

II. 本論

가. 日語

나. 英語

III. 結論

參考文獻

I. 序 論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言衆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번 외쳐도 언론에서 쓰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나 표현, 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우리말을 가르치고 다듬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만한 지경이다. 단순한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도 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그릇된 표현은 우리말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교열부가 축소 또는 폐지된 데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써야 하고 지면 편집에서 字數와 여백까지 고려해야 하고 讀易性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어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말의 체계가 어렵다고 해서 허물을 덮을 수는 없다.

언론 본래의 사명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평(해설)을 통한 여론의 반영과 유도에 있다고 보면 글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글이 의사 소통만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에 비해 갈수록 신뢰성이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신문은, 적어도 우리말글에서는, 국민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이니 책임이 더 무겁다. 신문을 교재로 교육을 하는 이른바 'NIE'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자체의 '교열 지침'을 만들어 주지하고 있을 텐데도 그릇된 말이 자주 보인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굳더더기 말, 부당하게 생략하는 뒷말, 조사의 오용을 포함하여 틀리거나 어색한 단어, 생각 없이 쓰는 일(영)어식 단어와 관용구, 오·남용하는 외(국)래어, 번역체 문장, 非文과 惡文, 작성 기자만 아는 문장(문단), 생략된 문장 부호, 기준 없이 하는 띄어쓰기, 남용되는 한자어와 위축되는 고유어, 로마자·아라비아 숫자·약자·속어 남용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글말은 입말을 거쳐서 뒤에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글말을 바탕으로 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데, 자의는 아니지만 신문이 이를 거두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같이 검토하는 일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방송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 사전마다 제각각인 발음 표기 문제, '표준 발음법'의 보완점 등을 고찰한 바 있다.¹⁾

이어서 제주 지역의 일간 신문에서 오용이 잦은 말 몇 가지를 최근 2~3간의 구

-
- 1)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체적인 예를 적시하며 검토했는데,²⁾ 이제 일어의 잔재, 영어식 단어와 관용구에 대해 논의한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외국(래)어 오·남용과 문장에 대한 검토는 후고로 미룬다.

대비를 위해 전국지, 다른 지역의 신문, 대학 신문, 잡지, 방송, 광고 등의 예를 먼저 보이고, 되도록 제주 지역 방송을 많이 보이되, 흔히 틀리는 몇 말은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든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이 제주 지역의 언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지역) 언론의 풍조를 생각 없이 따라 하지 말자는 의도에서다.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교열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뜻이 있기도 하다.

제주의 신문을 고루 예시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모든 신문을 정기적으로 보지 못한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기사 본문 뿐 아니라 제목(이른바 헤드라인(headline))을 많이 예시한 것은, 제목은 바로 눈에 띄는 일종의 포장이라 기사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명 비판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첫 자음)만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한두 신문 외에는 편집 기자가 명기되지 않으므로 제목을 예시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우리말에 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규범적인 표기를 전제로 하고 검토하되, 쟁점이 있으면 가다급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글의 성격상 이론적인 논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어와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 本 論

오랑캐의 침입을 경계하는 말인 ‘天高馬肥’나 콜레라의 중국식 표기인 ‘호열랄(虎列剌)’ 처럼, 잘못으로 뜻과 표기(호열자(虎列剌))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굳은 것

2) 許椿,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瀾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을 굳이 바로잡으려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특구 '심수(深圳)'를 아예 '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괴이한 것에 흥미나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일을 말하는 '엽기(獵奇)'가, 지저분하고 때로 잔혹하기까지 하지만 새로운 충격을 줄 때 젊은 세대가 쓰는 말로('엽기(적)') 변한 예나, 얼마 전부터 유행한 이른바 '삼행시'³⁾를 보면 우리말이 악화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여기에 컴퓨터의 보급으로, 'LOL(Laughting Out Loud), Nglsh(English), 망가, 시러, 왜부짜바, 했어여~, ""처럼, 어느 나라 없이 언어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조어법적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중딩, 고딩, 은따, 넷맹, 컴맹, 번섹, 컴섹, 컴시인' 같은 말이나 '虛費(浪費), 劫姦(強姦)'을 '과소비, 성폭행(때로는 (성)추행)'이라 하는 예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만 뜻의 왜곡과 변질은 늘 경계해야 하고, 언론 매체는 이런 말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고수부지(高水敷地), 노견(路肩), 인터체인지(interchange)'를 '둔치, 갯길, 나들목'으로 바꾸어 정착 단계에 이르게 한 데는 언론의 힘이 크다. 그러나 '다람쥐(마우스), 셴틀(컴퓨터), 무른모(s/w)' 같은 말은 아직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자국어의 뜻이나 발음을 따라 '컴퓨터'를 '电脑(电子计算机)', '엘리베이터(elevator)'를 '电梯(升降机)', '서울'을 '汉城'이라고 하는 중국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일어의 잔재를 씻는 데는 물론이지만, 외국(래)어를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도 언론이 해당 학회와 연계해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⁵⁾

일어의 잔재를 씻고 외국(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는 언론의 소임이 참으로 크다. "국어순화운동의 첫째 목표는 일체잔재어의 추방, 둘째는 한자어에 대한 배척"⁶⁾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崇禮門'이라는 엄연한 이름을 두고 '南大門'이라고 강조한 일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보 1호 남대문'처럼, 일본의 교묘한 계략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굳어졌기 때문이다. '東·西·北大門'도 '興仁之門·敦義門·肅靖門'이 본래 이름이다. 따라서

3) "노(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벨(별 이상한 놈이랑 사랑하자면) ---, 라(나의 빈 가슴은 뭘로 채우나) ---"(00.10.22.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노벨상, 달라이 라마'로 삼행시를 지으면서)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4) () 안은 일본식 한자어임.

5) '서론, 결론'을 포함, 여기까지는 '주 2)(2002a)'를 바탕으로 한다.

6) 鄭龍起, "마음의'과 한·漢 융합", 「말과 글」 제69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6. 25쪽. passim.

‘남대문로’ 같은 길 이름도 고쳐야 한다. ‘윤중(輪中) 중학교’ 같은 학교 이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말(외래어)에 무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중에도 최근 철도청에서 ‘보선(保線:철도 선로를 보호 관리하는 일), 월승(越勝)’을 ‘시설 관리, 더 가기’ 같은 말로 고친 일은 펍 고무적이다. 특히 회사명, 상표명, 상품명, 口號 등의 일본투 외래어는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곽밥, 쌀빙’처럼 한자어까지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 북한의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다소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를테면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 누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가마니(かます), 라면(拉麵(麩)·老麵(麩))’처럼 일본 것이 토착화한 말도 있다. 짬을 가는 새끼로 엮은 ‘섬’ 대신 20세기초에 들어온 ‘가마니’가 쓰이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에는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를, 그나마 일어식의 서구어를 남용하는 일이 잦다. 더구나 일어 세대도 아닌 대학생들이 ‘입빠이(いっぱい), 후까시(ふかし)’ 같은 일본말을, 그것도 뜻을 비틀어서 쓰는 현실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선 이런 말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 그 실상의 일부를 보인다. 꼭 제주의 신문에서 적출한 말이 아니더라도, 특히 중요한 몇 말은 같이 보였다.

가. 日 語

우리말에는 무의식중에 쓰는 일어(의 찌꺼기)가 참으로 많다. 법률 용어에 일어 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아쉬운 대로, 생각나는 일본식 한자어만 열추 들어도 ‘家計, 加療, 家族, 角木, 假令, 姦通, 強姦, 見習, 階段, 工事, 光榮, 口座, 口錢, 給使(小使), 矜持, 忌中, 浪費, 內譯, 端初, 糖尿病, 枚數, 民草, 白墨, 俸給, 死體, 散步,⁷⁾ 傘下, 相談, 夕食, 世帶, 小賣, 手當, 手續, 手順, 始末書, 曖昧, 役割, 午前, 午後, 元金, 一應, 立場, 殘高, 全集, 正午, 朝食, 重且大, 天然痘, 諦念, 癡, 脆弱, 海女, 花代, 兄弟, 惑星’ 등은, 각각 ‘生計, 治療, 食口, 木棒, 設令·設使·設或, 通姦, 劫姦, 修習, 層階, 役事, 榮光, 計座, 口文, 使喚(使重, 使役), 自矜, 喪中, 虛費, 明細, 端緒, 消渴疾, 張數, 民庶·庶民(民衆, 人民, 蒼生 등), 粉筆, 月給, 屍體, 散策, 麾下, 相議(議論, 問議 등), 夕飯, 家口, 散賣, 加俸·別給, 節次, 順序·次例, 顛末書, 模糊, 所

7) 일본 奈良 時代에, 五石散을 먹은 후 ‘散發’을 빨리 오게 하려고 여기저기 걸어다닌 것을 ‘散步’라 했다.

任, 上午, 下午, 本錢, 大體·大綱, 處地, 殘額, 全書, 午正, 朝飯, 重大·深刻, 痘瘡⁸⁾, 斷念(拋棄), 妄靈, 不實, 潛女·潛嫂, 花債, 同氣, 行星' 등의 대응되는 우리 한자어로 바꿔 써야 한다⁹⁾. 나아가 '假令→이른다면, 角木→몽둥이, 綺羅(きら)星→빛나는(반짝이는) 별, 端初→실마리, 夕食→저녁 (끼니), 奧地(おくち)→두메, 元金→밑천, 輪中堤(わじゅうてい)→방죽/둘레 둑/섬둑, 朝食→아침 (끼니), 持分(もちぶん)→몫(--- 돈을 마련하려면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 자사주 매입 형태로 ---)(01.11.22. 한겨레 6면 '경제/economy' 0 기자 제목: 벤처스타들 미국행 '뒷말 무성')¹⁰⁾, 花代→꽃값/해웃값' 등처럼 고유어로 바꿔 써야 하겠다. '엑기스(エキス: extract)→진액'¹¹⁾ 같은 말은 물론이고, 전철의 '정산소(精算所)', 택시의 '할증(割増)', 고속 도로의 '노건(路肩)', 배달 회사의 '택배(宅配: 일본의 배달 회사 이름)', 운동 경기의 '신승(辛勝)' 등도 다 일어이니 다른 우리말로 고쳐야 할 것이다. '가라오케(からオケ)'와 '노래방'을 건주어 보라.

'國民, 權力, 浪漫, 美人, 相互, 性交, 案内, 愛人, 約束, 外出, 離婚, 昨年, 政治, 出產, 合格' 같은 말도 '人民, 權勢, 魯慢, 一色, 互相, 交合, 引導, 情人, 約條, 出入, 解婚, 上年, 政事, 生産, 入格' 같은 우리말이 있으나, 이미 굳거나 다른 말로 바꾸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겠다. '大統領, 新聞, 政府, 政治, 哲學' 같은 말

- 8) Cf. '痘瘡集要'(허준), '痘瘡經驗方'(박진희), '--- 북쪽 관리들과 만나 두창(천연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01.11.22. 한겨레 2면 '종합' ㄱ 기자)'은 반가웠다. 다만, '(천연두)'는, '두창'이 생소한 독자를 위한 배려인지 기사 내용상 북한말과 남한말(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대등하게 놓은 것인지 불확실하다. 1948년의 순화안(문교부, 「우리말 도로 찾기」)은 '天然痘'를 '마마'로 제시하였다(cf. 강신항, "일본 한자어", 「새 국어생활」 제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49쪽). '두창(마마, 천연두)'을 중국어로는 '天花'라고 하는데,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연구원, 1992)에는 '천연두'는 없고 '두창, 마마'뿐이다. '별성 마마, 손님 마마, 역신 마마'처럼 쓰이는 '마마'는 '천연두(てんねんとら)'를 이르는 우리나라 속어인데, '상감 마마'처럼 아주 존귀한 사람을 부를 때 칭호 밑에 붙여 이르는 말이다. '嬢'에 천연두란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嬢嬢'는 假借인 듯하다.
- 9) '家族, 兄弟'는 이미 굳은 말이기는 하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이라는 점에서도 '食口, 同氣'가 바람직하다. 기왕이면 '夫婦→内外, 結婚→婚姻'이 좋긴 하지만, '夫婦, 結婚'은 예전에도 쓰였으므로(cf. 「春香傳」, 「東明王篇」)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 10) 모든 인용은 원문대로이며, 바뀌는 문장과 단락은 /와 //로, 원문의 줄임표는 …로, 필자가 줄인 부분은 ---로 표시한다. 신문명의 '-일보, -신문' 등은 생략하고, 기사의 면수와 제목을 밝힌다.
- 11) '엑기스'는, 'extract'를 일본 사람들이 'エキス'로 쓰는 대로 따른 것이다. 1995.5.17. 제 7차 '정부·언론공동 외래어심의위원회'에서 '엑기스'나 '에끼스'는 버리고 '진액'으로 순화하기로 하였다.

도 마찬가지로이다.

1996.8.7.에 환경부는, '導管→물관, 附帶공사→달린 공사, 收斂하다→받아 모으다, 流入하다→흘러 들어오다, 低減 방법→줄이는 방법, 畜糞→가축분(똥), 港間→항구 사이, 호스(hose)→관, 拿捕하다→붙잡다, 凡例→일러두기, 揚荷→하물 운반, 汚泥→더러운 찌꺼기/흙, 汚水=더러운 물/구정물(병행사용), 下請→하도급 (아래도급/밑도급)' 등의 31개 환경 법령 용어를 순화·정비하여 발표하였다. '汚泥, 低減, 流入' 등의 일어식 표현과 한자어에 대한 대안 제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일어(의 잔재)인지 모호한 말이 많아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고, 이제 바로잡아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든다.

① 假令: '假令'은 '設令·設使·設或'으로 고칠 말이지만, 예시문의 맥락으로는 '假使'가, 나아가 우리말로 '이르테면'이 좋겠다.

가령 '마' 소리를 자주 쓰는 지역 언어습관과 일본어의 '마(ま)'를 연결시키고, --- (01.4.23. 조선 21면 ○ 기자 제목:日 '스루스루' 語源은 우리말 '술술', 일본어의 원형이 우리말이라는 내용의 기사라 더 씩씩하다.)

② 家臣:일본에서 그것도 봉건제 사회에서나 쓰던 말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YS 家臣 그룹, 가신 정치, 동교동(계) 가신' 처럼 쓰고 있는 현실이다.

"동교동계 가신 정치의 폐해가 가장 큰 것은 ---"(01.11.9. MBC TV¹²⁾ '100분 토론' 卞 정치 평론가(남) 등)

"--- 상도동 가신들과 민주계였다./당시 김대중은 --- 동교동 가신이라는 끈을 ---"(01.11.18. MBC TV 'MBC 스페셜' 해설 卞 아나운서(남))

③ 階段(かいだん):국어 사전(「민중1」¹³⁾)에는 '층층대' 외에 '일을 이루는 데

12) 약자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편의상 로마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연도는 뒷부분만 줄여서 표기하고, 프로그램이 연속될 경우 자정을 넘겼어도 그 전날로 하였다. 필요시 10분 단위의 방송 시간과 진행자의 성별을 밝혔다. TV 자막을 제외한 방송 인용은 " "을 하였다.

13)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옛센스 國語辭典」(편집국 편, 민중서림, 1991), 「국어대사전」(국어국문학회, 민중서관, 2000),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금성출판사, 1988(제8판)), 「한글맞춤법·표준어사전(행정용어순화편)」(국어학회 편, 국어교육연구소, 1995), 「연세 한국어사전」(연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주) 두산 동아, 1998), 「2000년 신어」(국립국어연구원, 2000),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연구원, 1992), 「韓國漢字語辭典」(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92~1996), 「中韓大辭典」(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등의 직접 인용 사전은, 이하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민중1」, 「민중2」, 「새 우리말」, 「국어연구소」, 「연세」

밟아야 할 순서'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때는 '段階'라 하면 된다. 같은 이유로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자동(식) 계단(「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민중 1」 등)'보다 '자동(식) 층계'가 바람직하다.

계단주의(00.7.5. 현재. 서울역 승강장의 표지)

“--- 내일 계단을 뛰어오를 것입니다.”(01.2.17.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口 배우(남))

“다친 장소를 보면 문과 계단이 가장 많았고 ---”(01.3.20. K2TV '뉴스 투데이' 口 기자(남))

“--- (장애인을) 또다시 가로막은 계단이 ---”(01.4.20. K1TV 뉴스9 제주 뉴스 口 기자(남))

“계단을 올라가 ---”(01.10.7. MBC TV '출발 비디오 여행' ㅎ 공동 진행자(남, 아나운서) 글=ㄱ 작가 외 3명)

④ 口座(こうざ):어감에도 차이가 없는데 '計座'를 두고 굳이 '口座'라 할 까닭이 없다. '階段/層階'도 같은 예이다.

“사직동팀이 주는 구좌 번호나 ---”(99.1.21. K1TV '뉴스 라인' 금융 감독원 口 국장)

“청약 통장의 구좌 수도---”(00.4.30. K1TV '경제 전망대' 해설 아나운서(여))

1억구좌 돌파 謝恩행사//장기급여 올 3천만구좌 증가(01.4.25. 대한교원 767호//01.11.14. 순 779호 1면 무기명 제목)

“--- 불과 육개월 만에 이만 개의 구좌를 확보했습니다.”(01.6.22.09:40 K1TV 뉴스 도쿄 = 口 특파원(남))

“--- 농협과 제주은행, 조흥은행 구좌를 통해서 ---”(01.12.19.12:00 제주 K1TV 불우 이웃 돕기 모금 홍보 아나운서(여))

⑤ 根性(こんじょう):'본성(「한글학회」), 성깔' 등으로 순화할 말이다.

“존스는 근성 있는 몸싸움으로 ---”(01.11.10.20:50 SBS TV '오늘의 스포츠' ㄱ 기자(여))

“--- 승부 근성이 나타나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01.12.23.21:40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口 기자(여))

「신어」, 「선대」, 「韓國漢字語」, 「中韓大」로 줄여 표시한다.

⑥ 단위 명사¹⁴⁾: 닭이나 오리를 세는 단위 ‘首’는 일본식이다¹⁵⁾. 일어 ‘本’은 식물, 本草, 막대기 등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인데, 영화 편수를 셀 때도 ‘本’이라고 한다. 흔히 보는 ‘二本同時上映’의 ‘本’은, ‘篇’이 우리말이다. ‘원고지 50枚, 나무 100本’은 ‘50장(張), 100그루’면 족하다. 우리말의 풍부한 단위 명사를 살려 써야 한다.

⑦ 端初: 앞에서 예시했지만 강조하기 위해 항목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이 ‘실마리’를 뜻하는 우리 한자어 ‘단서(端緒)’와 같은 뜻으로 신문에 많이 쓰는데, 최근 흉내쟁이 지식인들이 지각 없이 배워 써서 급속히 퍼지는 바람에 ‘실마리’와 ‘단서’는 악화(惡貨)에 밀려난 양화(良貨) 신세가 되었다¹⁶⁾.

⑧ 뽀뽀(もんべ): ‘뽀뽀’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밑단만 잘룩하게 조여 일하기 편하게 만든 바지를 인른다. 여자들이 입는 것으로 통이 넓고 발목을 묶게 되어 있는데, 二次大戰 중에 작업과 보온을 위해 널리 입은 왜바지이다. ‘일바지, 허드렛바지’,¹⁷⁾ 그보다는 ‘왜바지’가 좋을 듯하다.

뽀뽀바지(99.10.25. K1TV ‘20세기 한국 톱10’ 자막, ‘뽀뽀’는 그릇된 표기인데 그나마 ‘바지’는 불필요한 말이다.)

뽀뽀바지(99.10.25. 동아)

⑨ 무데(땃)뽀(むてっぽう, 無鐵砲): 앞뒤 생각없이 무턱대고 하는 모양, 분별 없음, 경솔함을 뜻하는 일본말 ‘むこうみず(向こう見ず)’의 속된 표현으로, 방향과 시각을 겨냥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쏘아 대는 발포 행위에 비유한 것이다¹⁸⁾. ‘무모(한 사람), 막무가내, 저돌적, 무턱대고’ 등으로 순화할 말이다¹⁹⁾.

“난 똘똘 무데뽀로 달려들었고---”(00.5.8. K2TV ‘TV는 사랑을 싣고’ 해설 성우(남))

“--- 다른 형사와 달리 무대포 같은 ---”(00.10.31. MBC TV ‘섹션 TV 연예 통신’ 리포터(여))

“--- 무데뽀 정의과 형사(刑事)---”(01.2.24. MBC TV ‘퀴즈 영화 탐험’ o 공동 진행자

14) 정재도, 『샘술말과 샘날말의 어울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원기자협회, 1997. 74~76쪽. 장진한, “단위명사 통일”, *ibid.*, 19~29쪽. 등에 우리말 단위 명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15) 장진한, *ibid.*, 74쪽. 그런데 이 때의 일어 단위 명사로는 ‘羽(わ)’가 일반적이다.

16) 이수열, 『우리말 바로 쓰기』, 현암사, 1999. 375쪽.

17) 박숙희,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한울림, 1996. 71쪽.

18) *Op.cit.*, 373쪽.

19) *Cf. op.cit.*, 72쪽.

권오문, 『이것만 알면 바른글이 보인다』, 생각하는 백성, 1997. 337쪽.

(남, 아나운서)

“몸으로 때우는 무대포형!”(01.11.16, MBC TV ‘앙코르 출동 6mm 현장 속으로’ 해설 성우(여), ‘무대뽀’가 전장에 나가는데 총(대포)도 없이 무턱대고 나서는 사람을 일컬은 데서 온 말이라는 설에 따라서 ‘무대포’인가?)

⑩ 民草: ‘たみぐさ’라고 혼독하는 일어이다. ‘民草’가 단순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식 있는 민중이나 서민을 가리키는 말이며 풀뿌리 같은 민중을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 한자 용법대로 ‘草民’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²⁰⁾. ‘풀’이란 시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견잡을 수 없이 퍼져 있고, 요즘은 약간의 걸멋과 현학적인 티를 내려고 애용하는 듯하다. 언론 매체는 물론 문인이나 국문학자까지 무분별하게 쓰고 심지어 사극에서도 애용되는 이 말은, ‘民庶, 庶民(民衆, 人民, 蒼生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기자, 구성 작가, 성우, 극작가, 문인, 학자 등의 주의를 촉구한다. ‘풀뿌리’란 말도 쓰지만 영어식이다(이로써 풀뿌리 출신들이 --- (00.4.14, 조선 ㅈ 기자 제목: “떠오른 新人들”), 「국어연구원」(백성을 길건 생명력을 지닌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예: 이름 없는 민초, 민초에게도 용승하시옵거니와 --- (박종화, 「금삼의 피」)과 「한글학회」(‘백성’을 달리 일컫는 말)의 표제어인데, 둘 다 일본식 한자어임을 명기해줘야 한다. 보완해야 할 점이다. 너무나 많아 예를 다 들 수는 없고 일부만 보인다.

대왕은 역대 통치자들이 인간 대접을 해 주지 않았던 많은 민초들을 생각한 것이었다.(97.8, 「한글 새소식」 제300호, ○ 소설가 제목: 한글과 나)

“민초들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98.12.22, K2TV ‘TV 명인전/사진 작가 홍순태’ 해설 성우)

임금을 알현하려는 민초의 단심을 보는 것 같다.(99.2.4, 조선 19면 ○ 기자, 바둑 기사)

“3·1운동직후 숲모으기 했다”//이 땅의 민초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음을 --- (99.3.27, 조선 ○ 기자 제목과 본문)

〈한겨레〉 여론 면에는 민초들의 삶이 있습니다.(99.5.5, 한겨레 「알림」 무기명)

‘민초들의 피울음’ 100년전 시대상(99.6.4, 문화 ㅁ 기자 제목(영화 ‘이재수의 난’ 소개 기사))

“--- 평범한 민초들의 터전이다.”(99.11.10, K1TV ‘수요기획’ (白碑로 담은 長省의 청백리

20) 주 17) 193쪽. 중국어로 ‘草民’은 평민을 뜻하나(「中韓大」), 국어 사전이나 자전에는 없는 말이다. 轉義로, ‘풀숲’에서 ‘民間’을 뜻하게 된 말은 ‘草莽’이다. 유사한 말인 ‘草莽’는 ‘잔디’를 뜻하나, 중국어로는 ‘民間人, 在野人’을 말한다.

소개) 해설 성우(남) 글·구성 ㅇ 씨)

--- 내용물로 행세하다 그릇을 빠져 나와 민초의 세계관에서 본질적 가치로 성장·발전 하였다.(99.11.26. ㅇ 교수 “‘고전문학의 현대적 해석’ 반성” 11면(제주대 인문대·인문과학 연구소 주최, '99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장원 作 '일어서는 새벽'... 민초들의 삶 역동적 표현//이 작품에는 등걸 잠을 자는 나 목 같은 민초들의 삶이 --- (99.11.29. 중앙 <중앙 시조 紙上 백일장> '심사평'(심사 위원 ㅇ·ㅇ 작가) 제목과 본문, 제목은 심사평에서 뽑았겠지만 기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장원 作'은 김지철의 '일어서는 새벽'인데 마치 '장원'이 인명처럼 보이니 '作'을 빼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민초 애환 감동... 6월까지 연장(00.1.28. 중앙 ㄱ 기자 제목:MBC '허준' 열풍 소재목) KNCC 언론모니터화-MBC 드라마 '허준' 평:'민초들의 삶'(00.3. 「신문과 방송」 제351호, '언론모니터단체 보고서')

백제 민초의 삶 재구성(00.4.12. 중앙 '불만한 프로그램' 무기명 '新정음사' 소개 제목)

--- 민초들 삶이 있다.(00.4.16. 조선 '시네마'(SBS TV의 영화('아름다운 시절') 프로그램 해설 무기명)

궁예는 민초 지지받은 '王材'//--- 궁예가 민초들과 함께 하며 --- (00.4.18. 조선 ㄱ 기자 ㅇ 사극 작가와 인터뷰 중간 제목과 작가의 말)

"개화기 제주 민초들의 생활상을---"(00.6.7.20:30 K2TV '뉴스 투데이' 제주 아나운서 (여, 리포터(?))

국민은 이 과정에서 애꿎은 민초들만 또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면 걱정하고 있다.(00.6.30. 동아 '기자의 눈' ㅈ 기자(이슈부) 제목:'위기의 7월')

"민초의 삶을 살찌우고 ---"(00.11.4.15:10 K1TV '제 11회 목포 가요제' 목소리 출연 성우(남))

그의 호 연민은 넓은 연못과 백성을 합쳐 지은 것으로 '민초'를 뜻한다.(00.11.11. 중앙 ㄱ 기자 제목:'삶과 추억-故 淵民 이가원 선생', 漢學者에게 갑자기 웬 '민초'인지 답답하다.)

하지만 민초들은 다르다.(00.12.23. 조선 ㄱ 기자 제목:"풍운아 홍국영의 일대기"(소설 '풍운-정감록' 소개 기사))

궁예는 --- 비천한 몸으로 민초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 (01.3.15. 문화 6면 '오피니언' ㅇ 위원장, 국사학자의 글이다.)

세번째 女지사 탄생... 언론들 "정치권 염증 민초 승리"//--- 일본 언론매체는 --- 민초

의 승리로 평가했다.(01.3.27. 동아 A13면 도쿄=스 특파원 제목:日 피플파워 기적 낳았다
부제와 본문, 일본 신문의 번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민초 속으로 들어간 옛 민족의 ---”//“(풀은) 민초 아납니까?”(01.4.24. K2TV ‘마이 웨이’ (풀피리 연주가 박찬범 씨 얘기)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ㄴ 씨//인터뷰한 박 씨의 제자 ㄱ 교사(남, 민족 사관 학교)의 말)

‘태조 왕건’은 궁예를 때른 카리스마를 지닌 ‘민초의 벗’으로, ---/ --- 제작진은 “지금의 궁예는 더욱 더 민초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며 일축했다//왼쪽부터 초기 민초의 벗, ---(01.5.11. 중앙 48면 ‘주말 예감’ 〇 기자 제목:궁예, 그 죽음의 진실은... 본문과 사진 설명)

“--- 지금 민초들은 새로운 세상을 ---”(01.5.12. K1TV 극 ‘太祖 王建(재)’ 극 중 형미 대사의 말, 극본 〇 작가)

--- 구술을 통한 역사 기술은 민초들의 역사적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시도다.(01.6.16. 중앙 34면 ‘인문/사회과학’ 〇 기자 제목:口述로 정리해본 해방·분단사)

--- 관음바위는 민초들의 기도처가 되었다.(01.6. 「모닝캡」 ㄱ 여행 작가 제목:수덕사, 배제의 향기가 여전히 배어 있다(‘배어’는 ‘배’라야 한다.))

다만 가난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민초들은 ---(01.7.14. 동아 A14면 ‘신복룡 교수의/한국사 새로 보기’ 제목:환곡은 地主들의 ‘쌀 高利놀이’)

최근에는 외환위기 등 경제난에 시달리는 민초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01.7.17. 동아 19면 ‘문화’ 〇 기자 제목:신문사진100년 ‘시대의 거울’ 앞에 서서...)

무명의 민초들이 얼마나 반듯하고, ---(01.8.18. 문화 5면 ‘인터뷰’의 ‘주말 초대석’ 〇 기자 제목:“화장 벗겨낸 맑은 노래가 생명력” 〇 가수(여)의 말, ‘민초’가 얼마나 일반화한 말인지 보여준다.)

민초(民草)를 늘 걱정하던 황희 정승이 ---(01.3.11. 제주 4면 ‘춘하추동’ ㄱ 논설 위원)

㉑ 本人, 張本人: 本人(ほんにん)은 ‘당사자(명사), 이야기하는 사람의 自稱(대명사)’을, ‘張本人’은 어떠한 일을 빚어낸 바로 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민중1」). 두 말 다 「한글학회」의 표제어이다. ‘장본인’은 ‘發頭人’으로 풀이하였는데, ‘발두인’은 ‘일을 피하여 일으킨 사람, 주모자’를 말한다. 대통령, 국회 의원도 자신을 가리켜 ‘本人, 本議員’이라 하고 관용 서류에도 ‘본인’이라 적혀 있으니, 이제 전 국민의 일상어가 되었다. ‘저, 자신, 당사자’ 등으로 고쳐야 할 말이다. ‘張本(ちようほん)’은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근본을 말하니, 좋은 일에는 쓰지 않아야 하는 데도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 ‘부정적 효과’(‘나. 영어’에서 후술함) 같은, 어

이없는 말이다.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장기.”(97.11.10.16:50. 제주 K1TV ‘감굴 아가씨 선발 대회’ ○ 공동 사회자(남))

“(만아들이) 이제 엄마를 걱정해 주는 장본인이다.”(98.5.21. K1TV ‘이것이 인생이다’ 해설 광주=ㄱ(ㄱ(?)) 성우(여), 구성 작가 탓이겠다.)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98.12.21. MBC TV ‘10시 임성훈입니다’ ○ 진행자(남))

“본인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 모양인데 ---”(99.1.1. K1TV ‘아침 마당’ 출연자 ㄱ 검사(남))

“늦둥이를 두셨나요?”/“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아 ! 본인!”(99.11.8. K1TV ‘아침 마당’ ㅅ 공동 진행자(남, 아나운서), 주부 출연자에게 묻고 대답하는 말)

“이○○ 씨 본인이 그랬습니까?”(00.3.30. K2TV ‘추적 60분’ ㅎ PD(남)(이름은 음성을 지움))

“박동진 명창은 본인께서 ---”(00.3.27. K2TV ‘TV 명인전’ 해설 ㄱ 성우(남))

“본인에게 통보하고 ---”(00.4.25. K1TV ‘뉴스 라인’ ㅈ 기자(남))

김현은 당시 계간지 ‘문학과 지성’의 대표적 기획이기도 했던 ‘재수록’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01.2.28. 문화 ㅂ 기자 제목: ‘文知시대’ 꽃피운 한글세대 ‘대부’)

“80년대, 그 화려한 한국 복식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장본인.”(01.3.20.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ㄱ 작가)

본인은 신장...부친·아들은 시신(01.5.10. 문화 31면 ㅂ 기자 제목: ‘새 삶’ 나눠준 3代の 장기기증 중간 제목)

“그럼 (머리카락으로) 이 옷감을 만든 장본인이 태국의 한 미용 학원---”(01.5.27. K2TV ‘풍물 기행 세계를 가다’ 중 ‘테마 풍물 회한한 세상’ 해설 ㄱ 텔런트(남), 대본을 쓴 구성 작가 탓인 듯싶다.)

이씨는 약관 24살 때 쓴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 원전 학습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01.7.21. 한겨레 ‘인문학데이트’ 정리=ㄱ 기자, 편집자의 해설)

본인의 비평집 --- (01.7.31. 동아 A14면 ‘문화’ 제목: “난해한 문학비평은 작가들조차 읽지 않아”)

“유언장 남기기를 시도한 장본인은 ---”(01.9.26.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ㄱ 개그맨(남))

그러나 나이든 본인의 측은함을, 이제는 저물어가는 --- (01.10.29. 중앙 7면 ‘오피니언’의 ‘詩가 있는 아침’ ㄱ 시인(문정희의 시 ‘물을 만드는 여자’ 소개 해설))

세릴은 내가 --- 미국 마이너 리그에서 뛸 때 한국을 추천했던 장본인이다.(01.11.9. 중앙 43면 '스포츠 플라자' ㄱ 기자 제목:"아내와 감독님 덕에/코리안 드림 홈런"(MVP 삼관왕 타이론 우즈와 인터뷰 기사))

⑫ 部落(ぶらく):일본에서는 천민 거주지를 '部落'이라 하였으니, 일본이 우리나라의 마을을 가리켜 '부락'이라고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국어 사전(『한글학회』, 『민중1』 등)에는 '산간 부락, 부락민'을 예시하며 '마을, 시골의 큰 마을, 시골의 집이 많이 모여 있는 큰 마을'로 풀이하고 있는데, 일본말임을 명시해야 한다. '부락민(=부락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어연구소』는 '부락 ↔ 마을'로 즉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된 용어를 아울러 쓸 수 있'는 말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락'은 순화한 말로만 쓸 단어이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으니,²¹⁾ '부락'은 '마을, 동네' 등으로 고쳐야 한다.

"--- 자연 부락---"(00.4.8.17:00 제주 KITV 뉴스)

"부락을 소개해 주셔야죠."(00.5.23.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ㄷ 공동 진행자(여))

따라서 서낭은 본시 부락 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서낭이 무속화된 이후 부락 사람들은 서낭 앞을 지날 때면 ---/--- 부락의 단결심과 일체감을 깨뜨리기 위해 부락제를 금지시켰던 일제의 탄압. --- (01.5.12. 동아 A13면 '신복룡교수의/한국사 새로 보기<7>', '부락→마을, 부락제→마을제, 洞祭'라야 한다. 군더더기 말인 '무속화된'은 별고에서 검토했다²²⁾.)

"부락"(01.9.9.18:40 제주 MBC R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진행자와 ○ 출연자(남. 향토 사학자))

⑬ 死體(したい):일어 발음으로는 '屍, 死(シ)'가 발음이 같아서, 일본은 그들의 상용 한자 중 '死'로 '屍'를 대용한다. 그래서 일어 사전에는 '死體·屍體'가 함께 표제어로 나온다. 아마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같은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굳은 말이라 생각한다. '歲, 才'도 발음이 같아서 대용한 글자이므로, '歲'를 '才'로 적을 이유가 없다('五十歲/五十才'). '缺'을 음과 뜻이 전혀 다른 '欠'으로 적는 일도 같은 맥락인 바, 缺試者를 표시할 때 '欠'이라 적(으라고 하)는 일은 하루바삐 고쳐야 한다. 특히 관공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일은 먼저 시정해야 한다. 마찬가지이다.

"--- 구난함이 사체 다섯구 보관 ---"(98.5.11.21:40 제주 MBC TV 뉴스 ㄱ 기자(남))

2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1991.

22) 주2)(2002a)

“--- (침투한 반잠수정에서) 사체 한 구가 인양되었습니다.”(98.12.18.21:00 MBC TV 뉴스 ㄱ 공동 앵커(남)와 보도 기자(남))

경찰은 요한군의 사체가 부패된 정도로 미뤄---”(99.2.9. 경향 〇·울산/ㄱ 기자)

“사체”(99.6.30. K2TV ‘공개 수배 25시’ 진행 기자(남), 00.7.16.12:00 MBC TV 뉴스 ㅎ 아나운서(여), 00.10.18. K1TV ‘자연 다큐멘터리’ 해설 성우(남), 01.1.11. MBC TV ‘마감 뉴스’ 앵커(남)와 보도 기자(남)(대형 할인점 화재와 살인 사건 보도), 01.6.14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남), 01.7.19. MBC TV ‘환경 르포’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ㅂ 작가, 01.8.25.20:50 K1TV 뉴스9 보도 기자(남), 01.8.28. MBC TV ‘PD 수첩’ 〇 PD(여), 01.9.18. MBC TV ‘PD 수첩’ 〇 PD(남), 01.11.9.16:10 K1TV 뉴스 〇 아나운서(남) 등)

“손할머니의 사체를 ---/부검은 사체의 몸에 칼을 대는 일이니만큼 ---”(99.7.8. K2TV ‘추적 60분’ ㄱ PD(남))

매머드 사체(99.10.21.21:30 MBC TV ‘뉴스 데스크’ 자막)

“(우간다에 종말론 신도들의 집단 자살) 사체가 ---”(00.3.28.09:4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사체에 속옷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체 사진---”(00.4.4. MBC TV ‘PD 수첩’ ㄱ PD(남))

“(영국에서 복제를 위해 죽은 호랑이의) 사체 조직에서 ---”(00.5.5. K1TV 뉴스9 〇 기자(남))

“그러면 이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00.5.20. 제주 MBC TV ‘4·3 특별 기획’ ㄱ 기자)

“--- 돼지 사체를 방기(放棄)---”(00.5.25.10:50 K1TV 뉴스 앵커(남)와 ㅂ 기자(남))

“휴지통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아기의 사체는 ---”(00.6.11. K2TV ‘추적 60분’ ㅅ PD(남))

“사체가 발견된 곳은(이) ---”(00.10.5.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남) 글·구성 ㅅ 작가, 01.2.11.09:10 K2TV 뉴스 ㄱ 아나운서(남)와 보도 기자(남))

“(한라산의 노루) 사체”(00.10.18. K1TV ‘자연 다큐멘터리’ 해설 성우(남))

“--- 너구리 사체와 뼈가 널려 있다.”(01.2.16. K1TV ‘네트워크 기획’ 해설 〇 성우(남) 글·구성 ㅂ 작가)

“곧 이어 떠오른 사체는 ---”(01.5.15. MBC TV ‘PD 수첩’ ㅈ PD(남))

“손씨의 사체를 부검한 ---”(01.6.14. MBC TV ‘뉴스 데스크’ ㄹ 기자(남))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 밤인 ---”(01.6.26. MBC TV ‘PD 수첩’ 〇 PD(여)와 자막)

“사체를 봤소?”(01.8.25. MBC TV ‘주말의 명화(스위치백(Switchback))’, 보안관이 FBI 수사관에게 하는 말. 외화 더빙과 번역(ㅇ 씨)의 문제이다.)

이십대 사체 은닉(01.8.28. MBC TV ‘PD 수첩’ 자막)

“무기를 소지한 사체가 있었습니까?”(01.9.8. MBC TV ‘주말의 명화(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 檢事인 소령의 말)

한편 경찰은 채 양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 (01.10.5. 문화 31면 ‘사회I’ ㅂ 기자 제목:젊은목숨 앓아간 외모증시 풍조)

“사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01.10.19.18:50 제주 MBC 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더군다나 그 차 안에서 남녀 사체가 ---”(01.10.26.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공동 앵커(남))

“--- (침몰한 러시아 핵 잠수함의) 사체 수습 나홀만에 ---”(01.10.30.09:4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 사체에서 나온 성분과 ---//--- 한솔 양의 사체를 ---”(01.11.9.18:50 MBC TV 뉴스 의성=ㅇ 기자(여)//마산=ㄱ 기자(남))

--- 60대 남자의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에 외상이 --- (00.11.7. 제주 무기명 제목:별도봉 자살터서 변시체 발견)

⑭ 手順(てじゆん): ‘차례, 순서, 절차’ 등으로 순화해야 할 일본식 한자어인데 지금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 언론 종사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與 ‘끝내기 수순’ 기대/野 “초점 흐리기 의혹”(99.11.12. 문화 ㅂ 기자 제목)

이에 앞서 서울시는 ---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01.3.21. 동아 ㅂ 기자 제목:‘江南 내곡동 화장장’ 갈등 증폭)

신문 재갈 ‘또다른 수순’ 예고(01.4.7. 동아 A3면 ‘종합’ ㅅ 기자 제목)

야망을 위한 수순, --- (01.5.12.17:00 K2TV 극 ‘명성황후’ 예고 자막)

출병, 그 정해진 수순(01.6.24. K1TV 극 ‘太祖 王建’ 예고 자막)

---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수순, --- (01.7.19. 문화 5면 ㅅ 기자 제목:美 주식-채권-외환시장/그린스핀 ‘입’ 과 따로논다)

“--- (신라군이 저희에게) 애원을 하는 수순만 남은 것이옵니다.”(01.8.25. K1TV 극 ‘太祖 王建’ 극본 ㅇ 작가 극 중 백제의 예술 장군의 말)

“정해진 수순을 무시하면은 ---”(01.9.16. K1TV 극 ‘太祖 王建’ 극 중 백제 신하들의 대화)

“--- 폐쇄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01.9.18. MBC TV ‘마감 뉴스’ ㅂ 기

자)

“--- 수순이라는 것입니다.”(01.11.5. K1TV 뉴스9 ㄱ 기자)

“우리 집안 다 편안히 하자는 수순이지, 수순!”(01.11.21.20:10 K1TV 극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극본 〇 작가 극 중 증조부 역의 ㄱ 탤런트(남))

경찰 단속수순 “엉망”(01.4.21. 제민 23면 ㄱ 기자 제목)

⑮ 十八番(じゅうはちばん): ‘가부키(歌舞伎十八番)’에서 온 말로 ‘오하코(おはこ)’라고도 한다. ‘가부키 18번’의 대본을 상자에 넣고 보존한 데서 왔다고도 하고, 17세기경 일본의 ‘가부키’ 배우가 재미있는 막간극의 기예 18가지를 정리한 데서 나온 말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愛唱歌, 長技, 단골 노래’ 정도로 고쳐 쓸 말이다.

“나의 노래 십팔번은?”(01.6.24. MBC TV ‘사랑의 스튜디오’ 자막과 〇〇 부분 공동
진행자(남·여) 구성 작가는 ㅈ 씨 외 3명. ‘나의’도 일어식이다.)

⑯ 曖昧(あいまい): 불분명한 것을 이르는 우리말은 ‘模糊’이다. 더욱이 우리말
‘애매하다’는 ‘아무 잘못 없이 원통한 책망을 듣다.’는 뜻이니, 혼동을 피하기 위
해서라도 쓰지 않아야 한다.

“(모나리자 그림을 가리키며) 왜 이런 애매한 웃음을 지었을까?”(99.11.18. MBC TV ‘여
기는 코미디 본부’ 출연 코미디언(남))

더 큰 문제는 전씨의 애매한 태도입니다.(00.5.12.21:10 MBC TV 뉴스 〇 기자(남))

현대車-중공업 ‘主人’ 애매해졌다//--- 외형상 다소 애매한 위치로 변하게 됐다.(00.5.26.
조선 ㅈ 기자 제목과 본문)

“(현재의) 방문판매법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00.5.30. MBC TV ‘PD 수첩’ ㄱ
PD(남))

정통부의 애매한 선정 기준(00.7.17. 동아 ‘기자의 눈’ ㅈ 기자 제목)

“그러나 정작 애매한 점은 무엇을 가리느냐 하는 점입니다.”(01.3.22. MBC TV ‘지구촌
리포트’ 해설 성우(여))

“---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기준이 애매해 ---”(01.5.8.16: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
(여))

혹성은 ‘별일지 모른다’는 애매한 말이고 ‘나그네 별’이라는 의미의 행성이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요.(01.8.23. 동아 A19면 ‘사이언스’의 ‘카페’ 〇 기자 제목: 감정
가진 영장류 침팬지/인간을 지배하고 싶을까)

“美 애매한 核정책 바뀌야”(01.10.6. 동아 A11면 ‘국제’ ㅈ 기자 제목)

--- 별도의 명함을 만들기가 애매한 실정이기 때문.(01.12.15. 제주 17면 '복제주군' 조천
= 0 기자 제목:조천읍 이장·이사무장/명함제작 배부 '호응')

⑩ -에도 불구하고:-'에 다름 아니다(にほかならない)'처럼, 우리말에는 일어의
직역이 많은데, '-에도 불구하고'도 'それにもかかれらず'의 직역이다. '그런데도'
정도면 족한 말이다.

자전거타기의 많은 잇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 (01.10.4. 전북 6면 '기획' 0 기자 편
집=7 기자 제목:막대한 예산투자 비해 제기는 못해. '잇점'은 '이점'이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첫번째로 꼽은 이유는 ---" (01.11.13. MBC TV '행복한 책
읽기' 공동 진행자(여). '첫번째로'는 '첫째로' 또는 '첫째 번으로' 라야 문맥에 맞다.)

⑪ -에 있어(서의)²³⁾:'に於いて'의 직역인데, 심지어 문교부의 '한글 맞춤법 해
설'에도 이 말을 쓰고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의 제사의 역할'(津波高志(01.11.12.
제주학회 제18차 추계 전국학술대회). '역할'도 일어이다.)이라는 논제를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있어'는 전혀 필요 없는 말이니 '-에서(의)'면 충분하
다. 일상이가 될 정도로 널리 퍼져서 걱정스럽다. 주의를 촉구한다.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한글 맞춤법 해설(제28
항)'(「국어 어문 규정집」(문교부, 1990))

"세계화에 있어서도---"(98.12.31. MBC TV '목요 토론 마당' ㅅ KBS 기자(여))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사망 추정 시간은 ---"(99.10.31.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남). '시간'은 '시각'이 옳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00.4.25.21:00 K1TV 뉴스 0 기자(남))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00.4.28 MBC TV '마감 뉴스' ㅎ 앵커(남))

"(열녀가 되는 것은) 본인이나 가문에 있어 ---"(00.4.29. K1TV '역사 스페셜' 해설 성
우(남))

취재기자들에게 있어 이처럼 큰 모순은 없을 것이다.(00.6.27. 조선 '洪思重 文化마당' 제
목:取材記者)

"--- 접촉을 함에 있어서 ---/--- 대북 관계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00.7.20.
MBC TV '100분 토론' ㄱ·ㅎ 의원(남), 0 교수 등//00.7.20. K1TV '길종섭의 쟁점 토
론' 토론자인 0 변호사와 ㅅ 교수(남). 출연자인 대학생들 등)

"그녀에게 있어 노래는 ---"(00.7.18. K1TV 'TV 문화 기행' 해설자(여) 글 ㅁ 작가)

23) Ibid., '군더더기 말'에서 일부 검토했다.

학생차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 우리대학은 보행에 있어 얼마만큼 안전한 학교인가?(00.11.7. 제대 636호 ㅎ 기자 제목: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끝없는 '주차전쟁'")

"(혹한 때문에) 몽골에 있어서 이번 겨울은 가장 잔인한 겨울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01.2.9.09:4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그녀에게 있어 소리는 예술이었다."(01.4.3. K2TV '마이 웨이'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ㅂ 작가)

주랑에 있어서도 맞대결을 펼치면 --- (01.7.3. 동아 C5면 ㄱ 시나리오 작가 '연애가 블랙박스' 제목: 동갑 이미연-이영애 酒量서 연기까지 '라이벌')

"자동차 안전에 있어 ---" (01.7.22.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자막)

연주·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분야 최고의 고수들을 모셨다.(01.8.20. 중앙 48면 'Go Culture 판' 글=ㅇ 씨 음악 감독 고병준 인터뷰 제목: "사극과 테크노/의외로 찰떡궁합")

"사교 댄스는 미국인들에 있어 ---" (01.9.10. K1TV '한민족 리포트' 글·구성 ㅈ 작가 해설 ㄱ 성우(남))

"--- 숙면 시간에 있어서 모두 ---" (01.10.5. K2TV '뉴스 투데이' ㅎ 기자(여))

--- 소송의 재판 참관은 이들에게 있어 이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였다.(01.10.12. 동아 A7면 '오피니언'의 '기자의 눈' ㅇ 기자 제목: "한국경찰 이 정도인가요")

여권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 (01.10.24. 동아 A4면 '정치' ㅇ 기자 제목: "2승1패 나... 1승 2패나")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책정에 있어 학생의 참여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01.11.6. 제대 8면 '기획' ㅎ 기자 제목: 특별회계법 도입은 국립대의 민영화)

--- 수요와 공급은 특히 질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 더욱 세분화한다.(01.11.8. 한국 2면 '종합' 사설 제목: 최악의 청년층 실업사태)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만큼 ---" (01.11.13. MBC TV '행복한 책 읽기' 공동 진행자(여))

고려 왕조에 있어서 제주는 어떠한 지역인가?(01.11.14.20:30 제주 K1TV '비전21 제주 초대석' 예고 자막)

"격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편이었던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 (01.11.18.18:10 제주 MBC R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ㅎ 진행자(남, 아나운서))

㉑ -에 틀림없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일어 '-に ちがいない'의 직역이다. 'A가 ㅇㅇ이 아니다' 하는 말을 강하게 반박하려면 'A가 ㅇㅇ임이 틀림없다' 또는 'A는 틀림 없는 ㅇㅇ이다'고 해야 할 말을, 'A가 ㅇㅇ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커다란 이변임에 틀림없다' (97.12.22. 문화 '원로들의 당부')는

‘이것은 커다란 이변이다.’ 또는 ‘이것은 커다란 이변임이 틀림없다’고 해야 한다²⁴⁾

㉔ 役割(やくわり): ‘役’은 音讀, ‘割’은 訓讀한 일어이다. ‘割’은 ‘쪼개다’는 뜻이니, ‘割(わり:나눔, 구문), 割箸(わりばし:나무젓가락)’를 상기하면 연관성을 알 수 있다. ‘所任, 구실, 노릇, 할 일’ 등으로 순화할 말이다.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 자금 지원 창구 구실을 톡톡히 해내며 --- (01.12.21, 제주 10면 ‘경제’ ㄱ 기자 제목: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도우미 자리매김, 일반적으로 쓰는 ‘역할’ 대신 ‘구실’이라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 3김 역할론을 언급했다.(01.5.12, 문화 4면 ㅎ 기자 제목:‘對보수’ 두 시가)

“제주 화단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젊은 작가들의 ---” (01.6.25, 10:00 K1TV 제주 뉴스 스아나운서(여))

“이제 여름내 제 역할을 다했던 여름 용품들을 ---” (01.9.18, K2TV ‘클릭 날씨@생활’ 〇 기상 캐스터(여))

교사들이 교장 평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 역할을 나눠 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01.9.29, 동아 A23면 ‘기획’의 ‘교육이 희망이다’ 도쿄·쓰쿠바=ㅎ 기자 제목:日 교사연수 “생생한 현장을 배우다” 사진 설명)

대학 박물관, 교육과 문화의 장 역할 충실히 해야(01.10.9, 제대 656호 8면 ㄱ 기자 제목)

“저는 늘부 역할이 어울리는 ---” (01.10.31, K1TV ‘6시 내 고향’ 〇 공동 진행자(남, 아나운서))

‘제주도에 있어서의 제사의 역할’(津波高志 교수 01.11.2, 제주학회 제18차 추계 전국 학술 대회(‘바깥에서 본 제주 문화’))

---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01.11.19, 동아 A5면 ‘종합’ ㅂ 기자 제목:“내년 대선후보 선출과정/어떤식으로든 역할할 것”, 직접 인용이야 어쩔 수 없지만 기자의 글에서는 ‘역할’을 다른 말로 써야 하겠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01.11.23, 중앙 45면 ‘ON TV’ 제목:“직업 및 사회교육도 강화할 터”, ㄱ EBS 사장(남)의 말)

--- 한국 요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 (01.11.23, 중앙 53면 ‘홈&쿡’ 〇 기자(ㅂ 기자) 제목:세월따라 요리따라 600년 사진 설명, ‘선구자적인 역할’은 ‘선구적인 역할/선구자 역할’이 자연스럽다.)

㉕ 例를 들어(면)(例(たと)えば): ‘이를테면’으로 써야 할 말로, ‘假令’ 같은 일

24) Cf. 이수열, 『우리글 같고 닮기』, 한겨레신문사, 1999, 104쪽.

본식 말이다.

“예를 들어(서) ---”(01.5.11.17:20 K1TV ‘바른 말 고운 말’ ㄱ 아나운서(남), 복수 표준어인 ‘-뜨리다/트리다, -거리다/-대다’를 설명하며//01.8.28.17:20 K1TV ‘바른 말 고운 말’ ㄴ 아나운서(여), 서로 뜻이 다른 말인 ‘어스름(해질 녘)/으스름(비 온 뒤 물기가 뽀얗게 앞이 잘 안 보임)’²⁵⁾을 설명하며)

“---예를 들면 초등학교생들에게 ---”(01.11.23, 중앙 45면 ‘ON TV’ 제목:”직업 및 사회 교육도 강화할 터”, ㄱ EBS 사장의 말)

예를들어 조주스님이 말한 ‘꺨다거(喫茶去)’의 --- (01.5.22, 제민 17면 ㄱ 기자 제목:새롭게 해석된 수행승 가르침)

㉔ 有耶無耶: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존재하는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의 뜻인 일본의 토속어로, ‘伊勢物語’에 실린 노래 ‘아리야나시아’를 한문조로 바꾼 것이다. 우리말인 ‘호지부지(←諱之秘之)’로 순화할 말이다.

㉕ -의(助詞):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己未獨立宣言書’),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동요 ‘고향의 봄’)’ 등의 ‘의’는 일어식이다. 조사 ‘의’는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평소의 자연스런 읽기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국어 정서법 연구』(ㄱ 교수, 태학사, 1999. 459쪽), 조사를 어색하게 쓴 ‘읽기 능력의 함양이’는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가 바람직하다. ‘자연스런’은 ‘자연스러운’이라야 옳다.)

“나의 노래 십팔번은?”(01.6.24, MBC TV ‘사랑의 스튜디오’ 자막과 ㄴ ㄴ 부분 공동 진행자(남·여) 구성 작가는 ㄴ 씨외 3명, ‘십팔번’은 전술했다.)

㉖ 一石二鳥: ‘To kill birds with one stone’을 막부 말기에 일본에서 번역하며 만든 말이다. 어감은 좀 다르지만 ‘一舉兩得’이 우리말인데, 심지어 ‘一石二鳥’가 만들어진 전의 史劇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다. 사극 작가들의 주의를 촉구한다.

“--- 일석이조이옵니다.”(99.12.4, K1TV 극 ‘王과 妃’ 극 중 한치형이 인수대비에게 하는 말, 더욱이 배경 시대는 조선 성종 때이다.)

“---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00.10.17, K1TV ‘뉴스 네트워크’ 춘천=앵커

25) ‘어스름’은 조금 어두운 상태(『국어연구원』), 저녁이나 새벽의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러한 때(『한글학회』)를, ‘으스름’은 빛 따위가 침침하고 흐릿한 상태(『국어연구원』), ‘어스름’의 전라 방언 또는 달빛이 좀 으스스푸레한 상태(『한글학회』)을 말한다. ‘으스름 달(=침침하고 흐릿한 빛을 내는 달), 으스름 달밤, 으스름한 달빛’처럼 쓰이는 ‘으스름’은, ‘비 온 뒤 물기가 뽀얗게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니, K1TV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와 사 기자(남)

“그렇게만 되면 일석이조 아니겠소이까?”(01.3.7. K2TV 사극 ‘천등 소리’ 이이침 역의 탤런트(남), 조선조 광해군대가 배경이다.)

“일석이조네!”(01.8.15.17:40 MBC TV ‘표 치킨’ 선전)

“--- (이봉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01.11.20.21:50 K1TV ‘스포츠 뉴스’ ㄱ 기자)

“--- (납골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00.11.26.09:40 K1TV 뉴스 ㄱ 기자(남))

“일석이조가 아닌가 합니다.”(01.12.17.17:50 MBC TV ‘생방송 화제 집중’ ㄱ 공동 진행자(남, 아나운서)

㉔ 立場(たちば:訓讀임):문맥에 따라 ‘처지, 태도, 주장, 관점, 생각, 방침, 조건’ 등으로 문맥에 따라 고쳐 쓸 말이다.

“(낙태에 대해) 의협(醫協)의 전향적인 입장이 ---”(01.4.27.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전향적’은 후술한다.)

“--- 학교 영어 교육도 강화될 입장입니다.”(01.5.16. K1TV 뉴스9 제주 뉴스 〇 아나운서(남))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제주 지역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 (01.9.11. 제대 653호 4면 ‘학술’ 제주대 출판부 ㄱ 교수의 저서 광고, 아마 책의 ‘머리말(또는 서문)’을 옮겼을 것이다. ‘바탕으로 하여’의 ‘하여’는 굳더더기 말이다.)

정부당국자는 “--- 역사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을 통해) 나름대로 진전된 입장을 ---”(01.10.5. 동아 A1면 〇 기자 제목:日 고이즈미총리 15일 訪韓, ‘입장’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알 수 있다. ‘나름대로’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말이다.)

또 대학의 입장에서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 (01.11.6. 제대 8면 ‘기획’ ㅎ 기자 제목:특별회계법 도입은 국립대의 민영화)

--- 4명은 유보입장을 밝혔다//--- 유보 입장의 위원들이 어느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01.11.12. 한국 4면 ‘정치’ ㄱ 기자 제목:“잡음없게” ---)

㉕ 殘高(さんだか):‘殘額, 나머지’면 충분하다. ‘高’로 액수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은 일어식이다. 이를테면 ‘生産高’는 ‘生産額’이라야 한다.

㉖ 前向的(まえむきてき):이께다 내각의 관방장관인 오히라 마사요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²⁶⁾이를 직수입한 것이다. ‘적극(적), 발전적, 진취적’

26) 주17) 238쪽.

등으로 고쳐야 할 말이다.

한편 교원공제회는 --- 회원대여이율의 인하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01.4.25. 대한 교원 767호 1면 무기명 제목:급여율 7.0%(稅後 5.85%)로 조정)

---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01.10.4. 동아 A3면 '종합' 스·오 기자 제목:'특별검사 수사권한 논란', '전향적'이라 하지 않아서 반가웠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00.4.25. K1TV 뉴스9 오 기자(남), 00.5.7. K1TV 뉴스9 ㄱ 기자(남), 00.7.20. MBC TV '100분 토론' 오 변호사, ㅎ·ㄱ 국회 의원, ㅈ 교수, 방청 학생 등)

"---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00.4.25. MBC TV 'PD 수첩' ㄱ PD(여))

"--- 대법원의 가치분 결정은 더욱 전향적인 것이었습니다."(00.4.25.(5.16.(?)) MBC TV 'PD 수첩' ㅈ PD(남))

---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등 --- (00.4.19. 한국 ㅂ 기자 제목:한나라 對與 '2중기류')

평론가 이명원(31)씨는 자유게시판에 올린 '백낙청 선생님께-창비의 전향적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00.7.10. 중앙 오 기자, '창비'의 사이버 논쟁 참여 기사, 문학 평론가도 '전향적'을 예사로이 쓰는 실정이다.)

"(낙태에 대해) 의협(醫協)의 전향적인 입장이 ---"(01.4.27.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검찰 무리한 기소 잦아... 법원 전향적 판결 꺼려(01.7.21. 한겨레 오 기자 제목:개폐대상 보안법 남용 여전 부제)

㊸ 絶對絶命: 絶體絶命(준말은 '絶體')의 일어식 표현이다.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하고 위급한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곧 '진퇴양난'과 같은 뜻으로 풀이한 사전(『한글학회』)도 있다. 흔히 쓰는 말이므로, 국어 사전(『국어연구원』)을 제외한 국어 사전에 없는 말임)은 '절대절명'을 표제어로 보이고 '절체절명'의 잘못(『국어연구원』)이라고 풀이해줘야 바람직하다.

"절대절명의 순간 ---"(01.11.29. MBC TV 'PD 수첩' ㅈ PD(남))

㊹ 政治: 이미 굳어진 말이니 이제 와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政事'라는 우리말이 있다. '政'의訓이 '정사'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개항 이후에 수입된 말인 '정치'를, 조선조가 배경인 사극에서 남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서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말(家族, 權力, 手順 등)을 남발하는 사극 작가들의 주의를 촉구한다. 몇 예만 보인다.

“정치는 어미가 합니다.”(99.10.31. K1TV 극 ‘王과 妃’ 인수 대비가 성종에게 하는 말, ‘가족, 권력’ 또한 같은 맥락으로(“오랜만에 가족들끼리 ---”(01.7.21. K1TV 극 ‘太祖 王建’ 태조 역의 趙 鎔린트(남), “--- 권력입니다.”(01.8.8. K2TV 극 ‘명성황후’)), 따로 궁중어를 쓰지 않는다면 ‘식구, 권세’라야 옳은 말이다.)

“--- 정치를 하지요.”(01.1.18. K2TV ‘천둥 소리’ 극본 ㅈ 작가)

“정치란 때론 ---//”--- 정치란 것이요.”(01.3.24//01.9.16 K1TV 극 ‘太祖 王建’ 극본 〇 작가)

“정치란 게 그렇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01.5.20.15:10 K2TV 극 ‘명성황후(재)’))

“정치는 ---”(01.8.28. SBS TV 극 ‘女人天下’ 극본 〇 작가)

㉞ 眞劍勝負: ‘眞劍勝負’는 물론 ‘眞劍’, ‘勝負’ 다 일어식 한자어이다. 국어 사전에도 ‘진검’은 없다. 일본은 武士가 우대받던 나라라 그런지 이런 비유가 널리 쓰인다. 이 말의 간명성과 말맛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점도 있겠으나, 이젠 좀 그만 쓸 때도 되었다. 이를테면, ‘목숨 건 결판’ 정도의 다른 말로 표현해야 한다. ‘無勝負’는 그렇다치더라도, ‘勝負’는 ‘勝敗, 흥정, 결판’ 정도로 바꿔 쓰면 되겠다. ‘진짜 칼. 木刀·竹刀의 對’로 풀이하며 ‘眞劍’을 예시한 字典도 있다²⁷⁾

--- 달인 중의 달인을 뽑는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99.10.22. 중앙)

인생의 진검승부를 준비하는 학생들(01.11.18.19:10 K2TV ‘도전 골든벨’ 자막)

이동통신업계 고객유치 진검승부(01.6.26. 제주 10면 ㄱ 기자 제목)

㉟ 칠부(七分:しちぶ): ‘칠분(七分)’ 이라야 한다.

“경쾌한 칠부 상하의(99.8.7.21:50 MBC TV ‘날씨와 생활’ 자막)

㊱ 祝祭(まつり): 우리나라의 ‘祭’는 儀式인데 비해 일본의 ‘祝祭’는 일종의 잔치이다. 북한에서는 ‘축전’이라고 한다. ‘축제’는 ‘祝典, 잔치, 모꼬지’로 바뀌어야 할 말이다.

“--- 특이한 축제를 ---”(01.9.6. K1TV ‘세상은 넓다’ ㄱ·초 공동 진행자(남)와 ㅈ 리포터(남), 밀라노의 ‘게이 페스티벌(Gay Festival)’ 소개)

‘감굴 따기 축제’(01.11.15.18:20 제주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서귀포시 예례동의 행사, ㄱ·ㅈ 공동 진행자(남·여)도 계속 ‘축제’라 하였다.)

유사 축제 중복 개최/저효율 개선책 시급//--- 축제 개최시기 결정부터 평가에 이르기

27) — 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까지 --- (01.11.6. 제주 1면 ㅎ 기자 제목과 본문)

㉓ 特段(とくだん): '特段'은 일어 사전의 표제어로 '특별, 각별'의 뜻이다. 이 말을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일어의 영향이겠다. 국어 사전 중 '特段'이 표제어로 나오는 「한글학회」는 '풀이되어 있는 표준말'인 '특별'에서 뜻을 설명하였고, 「국어연구원」은 '特段=特別'로 풀이하였다. '특단'은 '특별'로 고칠 말이다. 「국어연구소」는 '특단→특별한'으로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자살사이트 특단대책 마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01.28. 한국 B 기자 제목과 본문)

"---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01.8.21.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이제 공동개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 (01.11.17. 동아 B2면 '스포츠' ㅅ 기자 제목: "유치보다는 민심 무마"/표대결없이 최악 결론)

㉔ 下馬評: 일본 중세에 쇼군(主君)을 만나러 城에 간 다이묘(大名=영지를 가진 무사)나 하타모토(旗本=쇼군가의 직속 무사)들이 말에서 내려(下馬先)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世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지금도 입각 물망에 오른 사람들을 보도하면서 '하마평' 운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루바삐 사라져야 할 말이다.

㉕ -(하/되)고 있다²⁸⁾: 'ている'의 모방이며 군더더기 말이다.

국어의 "동사 [+지속성]"에 "-고 있다"를 붙여 그 행위가 지속됨을 표현하는 것은 현대국어에 들어와서의 일로서 일본어의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안고 있다, 떨고 있다'의 서술동사 '안다, 떨다'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어의 '振る, 抱く'에 '-ている'를 붙여 표현하는 '振っている, 抱いている'와 같은 어법에 이끌려 "떨고 있다, 안고 있다"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죽어 있다, 도착해 있다, 이혼하고 있다, (병이) 낫고 있다" 등의 어색한 일본어 스타일의 표현이 가끔 사용된다. 일본어는 "すぐれている(우수하다), おもだっている(중심이 되다), ずばぬけている(뺄어나다), ありふれている(흔하다)" 등과 같이 '-ている'를 붙여 사용한다. 국어에서는 상태 동사, 즉 형용사의 경우에 '-고 있다'를 붙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은 일본어와 달리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²⁹⁾.

28) 주 2)(2002a)의 '군더더기 말'에서 일부 검토했다.

29) 정광,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 국어생활」 제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94~96쪽. passim.

“--- 제주 특수가 기대됩니다.”(01.10.30.10:00 K1TV 제주 뉴스 □ 아나운서(여), 바람직한 말이다.)

“농어촌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된 --- 우려되고 있습니다.”(01.10.30.15:00 제주 MBC R 뉴스 ▽ 아나운서(여), ‘리사무소’도 어법에 어긋난다.)

㉞ -한(던) 것이다: ‘たのである’의 번역 차용이 거의 분명하며, 현대국어에는 많이 쓰이지만 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문장 구조다. “이것은 다 오늘 처가에서 가져온 것이다(현진건, ‘빈처’).”와 같은 표현은 역시 일본어의 간섭을 받아 생겨난 문장구조라고 볼 수 있다³⁰⁾. 더욱이, ‘것’은 추상성이 강한 말이라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사실을 객관적·직설적으로 전해야 하는 언론 매체는 더욱 그러하다³¹⁾.

“---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00.5.3. K2TV ‘병원 24시’ 글·구성 □ 작가 해설 □ 성우)

㉟ 其他:

㊱ 순화해야 할 다른 말들: 假處分(かりしょぶん)→임시 처분, 間髪의 차이→종이 한 장 차이/터럭 하나 차이, 覺書(おぼえがき)→다짐글, 약정서, 建蔽率(けんぺいりつ)→대지 건물 비율, 고바이(勾配, こうばい)→오르막/비탈/기울기, 高水敷地(高水位일 때만 물에 잠기는 하천 부지)(-しきち)→둔치(=물 있는 곳의 가장자리, 물가의 언덕) (마당)/강터, 곤(紺, こん)色→진남색, 감청색, 곤로(焔爐, こんろ)→풍로/화로, 구찌(口, くち)→몹, 기도(木戸, きど)→문지기/안전 요원, 김「海苔」마키(끼)→김말이, 켩깡(きんかん)→금굴(金橘)/동굴(童橘), 노가다(どかた)→막일/막노동, 다대기(たたき)→다진 양념(다대기 별첨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꼭 넣어 드세요.(01.11. 현재, ㄴ社 ‘무과마 湯麵’ 포장지)), 다시(だし)→맛국물, 단도리(だんどり)→준비/채비/단속, 團地(주택·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지역/구역/지구, 돈(豚)가스(とんかす(pork cutlet)→돼지고기 (너비) 튀김 (밥), 미싱(←sewing machine)→재봉틀, (담배 한) 보루(‘보루’는 ‘board’의 일본식 발음)→포, 보루 박스→판지 상자, 뽕끼(ペンキ, (네)pek)→페인트, 洗面(せんめん)→세수, 셋셋세(せっせっせ)→ 짹짹/야야야³²⁾//나나나/라라라, 소데나시「노슬리브(no sleeve)」(そでなし)→민소매/맨팔옷, 소라(そら)色→하늘색/연푸른색, 身柄(みがら)→몸/사람/신

30) Ibid., 97쪽, passim.

31) Cf. 주 2)(2002b)

32) 주 17) 82쪽.

상, 始末書(しまつしょ)→경위서/전말서, 食傷(しょくしょう)→싫증남/물림, 싱(しん)→심(芯)/속심지, 아나고(あなご)→붕장어, 오야(おや)→우두머리/책임자, 와사비(わさび)→고추냉이 양념, 자바라(じゃばら)→주름 물통/주름 대롱, 重且大하다→중대하다/심각하다, 카부라(かぶり)→단접기/끝접기, 하루나(はるな)→왜갓, 합바(飯場, はんば)→현장 식당/노무자 합숙소, 回覽(かいらん)→돌려보기, 히끼(ひき)→호객꾼/끌기/역회전(당구), 히마리(しまり)→야무짐/긴장/기운, 히야시(ひやし)→차게 함 등.

㉔ 대체어가 필요한 말들: 氣質(일어의 'かたぎ'인데 그 어원은 '形木(=천이나 종이 에 문양을 찍기 위해 물건의 형태를 조각한 板木)'이다. 여기에서 '본보기, 기준' 나아가 '인간의 성질, 氣風'으로 변한 말이다. 인간의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감정의 경향 즉 개인 성격의 기초로 되어 있는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인 감정 경향을 이르는 심리학 용어인데, '기상, 성격, 성질, 특성, 품성' 등의 이런 뜻에 적당한 우리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食事(심지어 '식사 먹으러 갑시다.' 하는 말까지 들리는데 '밥, 아침(점심, 저녁), 끼니, 진지, 수라' 등이 우리말이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식사하셨습니다?' 하는 정도는 이미 굳어졌으나 이때도 달리 좋은 말이 필요하다.), 案内(일본 문헌의 '檢案内'에서 온 말인데 '引導'보다 더 대중화가 쉽고 적당한 우리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글학회」는 표제어인 '안내'를 '인도' 외에 '알림, 알림장, 인도자'에서 풀이하었다. 「국어연구소」는, '안내'는 없고 '안내인→알리는 사람'만 제시하였다.), 坪村(경기도의 지명, 전형적인 일본식 말이다.) 등.

㉕ 직수입한 일어식 관용 표현의 순화: 앞서 보인 여러 표현과 '머리 속의 퓨즈가 날아가(ヒューズが飛(とぶ))' 같은 직역 외에도, 일어의 관용구를 우리말처럼 쓰는 일이 많다.

개죽음을 하다(犬死にをする), 달콤한 말(甘い言葉), 숨을 죽이다(息を殺す), 종말을 고하다(終り告げろ), 어깨를 나란히 하다(肩を並へる), 기억이 되살아나다(記憶が蘇る), 애교가 넘친다(愛嬌が溢れるを), 기가 막히다(氣が詰まる), 희망에 불타다(希望に燃える), 혀를 깨물다(舌をかむ), 패색이 짙다(敗色が濃い),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他の追隨を許さない), 눈을 의심하다(目を疑ら), 귀를 기울이다(耳を傾ける), 빈축을 사다(嘖覺を買ら),³³⁾ -있으시기 바랍니다(ありたく おれがいたします,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3) 주 19)(권오문) 175쪽.

(よろしくおねがいたします, '부탁을 잘한다'는 뜻이므로 '잘 들봐 주십시오,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야 한다³⁴), -을(를) 要한다(ようする), -에 다름 아니다(-に ほかならない→다름없다), -에 같음한다³⁵(-に かへる, -이를 '에'로 잘못 알고 해석한 데서 온 기형 말투다. 아래도 같다), -에 값한다(-に あたいする), -에 틀림없다(-に ちがいない)³⁶ 등.

㊸ 일어식 조어: 전형적인 예가 '재테크(財tech)', '時테크' 일 것이다. '엔고(円高)'도 '엔안(円安)'과 함께 일본이 만든 조어인데 '엔화 상승'이면 족한데도 이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젠 '원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텔테크族'도 일어식 조어다. 이런 조어도 간명성과 특유의 말맛이 있으나, 특히 언론에서 이런 말을 홍보하고 조장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하다.

기업들 재테크 열중(89.6.3. 중앙 6면 제목. 정부의 보도 자료를 옮긴 것이라니 더 문제이다. '한겨레'에서는 '돈굴리기'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에 있어서 ---"(99.1.2. MBC TV '뉴스 데스크' 0 기자, '에 있어서'는 전술했다.)

"새해에는 시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02.1.4.09:50 K1TV 뉴스 日 아나운서(여))

'텔테크族'을 아시나요(01.11.19. 동아 A2면 'Metro 리빙' ㅅ 기자 제목. '호텔+테크니션(전문직 종사자)+족'의 합성어다.)

㊹ 고쳐야 할 일어식 표기: '빵꾸(パンク, puncture: '구멍(내기/나기), 망치다'로 순화할 말인데, 구태여 '외래어를 쓴다면 '핑크'로 표기해야 한다.), '핀찌(パンチ, pinchers, <프 pince: '(자름) 집게'로 순화할 말인데, '펜치'로 표기해야 한다³⁷). 「한글학회」와 「민중1」은 '핀찌'가, 「국어연구원」과 「민중2」는 '펜치'가 표제어인데, 주로 철사 따위를 자르거나 집는데 쓰므로 '철사 절단기'도 무방할 듯싶다.), 자꾸(チャック, chuck=지퍼(zipper): '자꾸'는 '척(chuck:「한글학회」는 '치크'임)'의 비표준어 또는 틀린 말로 일어식

34) '잘 부탁드린다'와 달리, '잘 모르겠다'는 '모르는 것을 잘한다'는 뜻이지만 우리말의 관용어이므로 무관하다고 본다

35) 주 16) 127~128쪽의 '-에 가름한다'는 '-에 같음한다'가 옳다. 같은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은 '갈음'이다.

36) Ibid., 125~129쪽, passim.

37) --- 펜치로 끊어 임기응변을 한다(01.5.14. 교수 202호 6면 '달각밭이' ㅂ 기획위원 제목:대문을 고치고 나니). 주 19)(권오문 339쪽)는 '(자름)집게, 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어식이 아닌 '펜치'도 좋지만 그보다 우리말이 바람직하다.

발음에 따른 표기이므로, '지퍼'라 해야 한다. 나아가 '줄물리개(cf. 「한글학회」)로 바꾸면 더 좋겠다. '척'은, 공구나 가공물을 끼우게 된 일종의 회전 바이스 또는 지퍼를 이른다.), 프로(pro-: '프로'는 '프로그램, 프로덕션, 프로파간다, 프롤레타리아, 프로페셔널, 프로센토' 등의 준말인데, '스테인레스 스틸→스텐, 아파트먼트 하우스→아파트, 텔레비전→테레비' 같은 일어식 표기 방법이다. '--- 시청자에게 프로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전문 방송 홍보인'이 되는 것.'(99.7.19. 동아 ㄴ 기자 제목:예, 좋은 아침입니다), "--- 27프로나 높습니다."(00.7.30. K1TV '추적 60분' ㄹ PD)처럼 널리 쓰이고 사전에도 준말로 올라 있는 표제어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화이팅(fighting)→파이팅'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정종(마사무네(正宗) 가문이 만든 국화주(菊正宗)에서 유래)→청주'처럼 상표나 제조 회사에서 유래한 말도 있다. 버킷으로 흙이나 모래를 퍼내거나 깎아내는 데 사용하는 굴착 기계를 이르는 엑스캐베이터(excavator)의 통칭인 포클레인(포클레인(Poclain)도, 이를 처음 만든 사람과 그의 이름을 딴 프랑스의 重機 제조회사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장비의 영문 명칭은 'Hydraulic Excavator'인데, 중기관리법규상 분류에는 '굴삭기'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본의 법규를 옮긴 탓이겠다. 앞에서 보인 '屍/死, 歳/才'와 같은 맥락으로, '鑿, 削'의 일어 발음이 같아서 '굴착기'를 '굴삭기'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굴삭기'는 '굴착기'로³⁸⁾, 나아가 '삽차(「국어연구원」)³⁹⁾ 또는 '파내미'⁴⁰⁾로 순화해야 한다.

㉔ 일어식 상품명: '手打麵'⁴¹⁾, '2프로'(일어식인 '프로(%)'는 '프로센토(procento)'의 준말인데, 지금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만으로는 완전한 뜻이 되지 못하므로 '퍼센트(percent)'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등.

㉕ 검토가 필요한 말:

㉑ 乾畚直播: 조금만 가물어도 말라 버리는 논에, 이식하지 않고 마른 논에 씨를

38) '掘削(=땅을 파거나 깎아냄)과 '掘鑿(=땅을 파고 뚫음)'은 뜻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술한 이유로 '굴착'이라야 한다. 「한글학회」에는 '굴삭(기)'이 없다.

39) 「한글학회」에는 '포클레인'이 없으나, '포크 크레인(fork crane)(='파워셔블(power shovel)'의 통속적인 이름)'이 표제어이다. '파워셔블'의 풀이는 '삽차'이다.

40) 유만근, "굴착기·굴삭기→파내미", 「말과 글」 제85호,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45쪽. 불어로는 pelle m canique(기계삽) 또는 pelleteur(펠티르)라고 한다.

41) 주 2)(2002b)의 '新造語 문제'에서 검토했다. 다만 '라면(拉麵(麪))·老麵(麪)'은, 일본 '닛신(日清)식품'의 '치킨라멘'이 처음인데 중국식 국수 '라미엔(拉麵)'이 일본('라멘')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므로 일본식 표기라고 단정할 수 없겠다.

42) 자세한 예는 주 1)(2001b) 198~199쪽을 참고 바란다.

바로 뿌리는 것으로, 국어 사전의 표제어다. ‘마르는 곧뿌림(「한글학회」)’⁴³⁾ 정도로 고칠 말이지만, ‘乾畚(=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논)’과 ‘直播(= 옮겨 심지 아니하고 기를 자리에 씨를 바로 뿌림)’은 우리 한자어이니(「韓國漢字語」), ‘乾畚直播’가 일어(식)인지 의문이다.

㉠ 關한(해)(關する): ‘관한(해)’은 대개 군더더기 말이니 되도록 다른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해)(對(たい)する)’도 마찬가지이다. 「한글학회」의 표제어로 자세한 설명과 예문(국어 순화에 관한 실천 방안, 그 문제에 대한 일, 등)이 제시된 말이지만, 사용을 자제했으면 한다.

‘위기’에 관한 담론이 풍성하다.(99.11.1. 교수 167호 ‘學而思’ 卞 교수)

치질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01.2.16.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막)

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 개최(01.11.6. 제대 657호 7면 ‘지역사회’,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광고, ‘상담’도 일본식 한자어이다.)

배우자들끼리 불륜에 이른 두 부부에 관한 실화다.(01.11.22. 동아 C5면 ‘TV프로’ ㅎ 기자)

㉡ 國風(こくふう): 1981년에 ‘國風 81’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일본의 平安時代(794~1191)에 외국 문물을 일본식으로 수용한 문화를 ‘國風文化(=藤原文化)’라 하니, ‘國風’은 여기에서 널리 퍼진 듯싶다. ‘國風’은 원래 각 지방의 민요로, 古代에 조정에서 習俗의 良否와 정치의 선악을 보기 위해 각지의 노래를 수집한 것을 이르는데 ‘詩經’에 수록되었다. ‘國風’은 국어 사전의 표제어(=그 나라(특유의) 풍속)인데, ‘중국 제후들이 백성의 노래를 모아 천자에게 바친 노래(cf. 「민중 2」)와 구별하기 위해서도 ‘나라의 풍속’은 ‘國俗’이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 닭도리탕: ‘도리(とり)’는 ‘새(鳥)’니 일어와 복합된 ‘닭도리탕’은 ‘닭볶음탕(「국어연구원」)’으로 순화할 말이다. 그러나 ‘가토리(까투리), 메(山, 野)+추리(←투리, -두리), 종+다리(새)’에서 보듯, ‘두리=도리=새’이니 ‘닭도리탕’은 ‘驛前 앞, 草家집, 電線줄’ 같은 同語反復形이며, ‘도리’는 일본어가 아니며 최근에 역수입된 것도 아니라면,⁴⁴⁾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 메스암페타민·필로폰·히로뽕(ヒロポン): ‘히로뽕’은 ‘鹽酸메스암페타민(鹽

43) 김성동. “우리 말 우리 글 속 일본식 용어 999가지”, 「신동아」(1998.8.), 521쪽.

44) 朴在陽. “닭도리탕의 語源”,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6. 35~36쪽. passim.

酸메탐(담)페타민(Methamphetamine)⁴⁵⁾의 상품명으로 2차대전 중 일본에서 생산한 것인데, 결정성 가루로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는다. '히로뽕'이 '필로폰(Philopon/phillopon/Philophon)'의 일본식 발음이 아니고 '필로폰'이 '히로뽕'의 영어식 표기이다. 표제어도 사전마다 달라서 「국어연구원」은 '필로폰(〈phillopon〉/히로뽕(일 ←hiropon)(약=필로폰)', 「한글학회」는 '필로폰(네 philopon)/히로뽕(일 Hiropon)(쓰지 말아야 할 말, '필로폰'을 잘못 적은 말)', 「민중1」은 '히로뽕(Philopon)('필로폰'은 없음)', 「민중2」는 '필로폰(Philophon)/히로뽕', 「민중2」부록의 '외래어 사전'은 '필로폰(philophon)/히로뽕(philopon)', 「새 우리말」은 '필로폰(philopon)/히로뽕'인데, 영어 표기도 다르다. Webster 영어 사전에도 없는 이 말을 'phillopon'으로 등재한 영한 사전도 있으나,⁴⁶⁾ 많은 영한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위의 두 말은 상품명이므로 '메스암페타민'이 바른 말이겠으나, 처음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이미 굳은 말이므로 '히로뽕'이 좋다고 생각한다. '메스암페타민'이라 하지 않으면서 이를 구태여 '필로폰'이라 할 이유가 없다. 1986년에 '외래어표기용례 심의위원회'에서 '히로뽕'으로 정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필로폰'이라 하는 것은 '메스암페타민'이 바람직하되, '필로폰'보다는 '히로뽕'이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

운전기사 파고드는 필로폰(01.8.25.2050, 21:00 K1TV 뉴스9 예고 자막, ♫ 공동 앵커(남)와 ○ 기자(남))

필로폰인줄 몰랐을까?/"필로폰을 복용한 ---"(01.11.14.23:00 MBC TV '섹션 TV 연예 통신' 자막/스 아나운서(남))

"필로폰 복용 혐의로 ---"(01.11.14. MBC TV '마감 뉴스' ㄱ 앵커와 ㄱ 기자(남))

황수정 필로폰 사건 --- (01.12.1. K1TV '연예가 중계' 예고 자막)

필로폰이 든 주머니는 --- (01.12.6.23:00 MBC TV 'PD 수첩' ○ PD(남))

㊸ 文民: '文民'은 'civilian'을 번역한 말(「민중2」로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인을 뜻한다. 1946년 일본에서 만든 말인데, '문민정부'⁴⁷⁾ 같은 말은 이를 별 생각 없이 원용한 것이다.

45) 각성제로 '鹽酸메탐페타민'과 같은 말인데, 「민중2」의 '鹽酸메탐페타민(Methanpetamine)은 오기일 것이다.

46) 「뉴우 월드 英韓大辭典」(시사영어사, 1973)

47) '문민정부'는 '민간정부'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cf. 주 19)(권오문) 155쪽).

④ 小株密植:모 한 포기의 모 수를 적게 하고 전체 꽃히는 포기 수는 많게 즉 1 평에 90포기 이상 심는 방법인데, 국어 사전의 표제어이다. 「한글학회」의 풀이는 '적게 잡아 배게 심기'로 다소 모호하다. '잔포기 종종모'⁴⁸⁾ 정도로 고칠 말이나, 이 말이 일어인지는 더 검증이 필요하다⁴⁹⁾.

⑤ 身土不二: '身土不二'는 일본의 조어라는 견해도 있으나, '不二'는 唐代 天台宗의 중흥조 妙樂大師의 '依正不二'에, '身土(살고 있는 몸과 그 국토)不二(대립을 초월한 절대평등)'는 北宋의 智圓의 '金剛 顯性錄'에 나오며, 일본의 사전에도 없는 말이라 한다⁵⁰⁾.

⑥ 野菜(やさい): '야채'는 식용 草本 식물의 총칭이며, '채소'는 '온갖 푸성귀, 남새'를 이른다(「민중1」). 서로 유사한 뜻이니 넘나들며 쓰인다. 그래서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 채소'로 '야채'를 풀이한다(「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민중2」). '채소=소채=야채=남새'라는 말이다(「한글학회」). 한자로도 '野菜'는 '들에서 나는 나물, 채소, 푸성귀'를, '菜蔬'는 '남새, 푸성귀'를 뜻한다⁵¹⁾. '푸성귀'는 '사람이 가꾸어 기르거나 또는 저절로 난 온갖 나물'을, '남새'는 '무, 배추, 아욱 따위의 심어서 가꾸는 나물'을 말한다. 「선대」에는 '야채'가 없다. 중국어로 '野菜'는 '식용하는 들나물, 산나물'을, '菜蔬'는 '채소 반찬 요리'를 이른다(「中韓大」). 지금 어찌 쓰이든, '야채'는 '들나물'이니 들에 자생한 것을, '채소'는 '菜麻(=심어서 가꾸는 채소(「韓國漢字語」))'니 '식용으로 가꾼 나물'을 가리키는 본래의 뜻으로⁵²⁾ 써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부분이 '야채'라 하는데, 이는 '밭에서 식용으로 재배한 식물'을 '야채'라 하는 일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 일어에도 '菜蔬(さいそ)'가 있지만 '野菜(やさい)'가 일반적이다. 좀더 확실한 고증이 필요한 말이지만, '남새, 푸성귀'라 하지 않는다면, '무, 배추, 미나리' 등은 '채소'라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8) 주 43)

49)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어인 '樹幹注射'는, 나무 껍질이 아닌 줄기에 약을 주사한다는 말인 듯한데, 일어식인지는 미상이다. '수간'은 「연세」를 포함한 국어 사전의 표제어지만, '수간주사'는 국어 사전에 없다. '나무 주사'(「국어연구소」) 정도로 고칠 말이나, 더 적당한 우리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50) Cf. 김윤우, "身土不二의 어원과 사상 再考", 「말과 글」 제76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8, 43쪽.

51) 李家源·張三植 편, 「詳解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 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52) 野菜(遼史):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菜蔬(晉書): 남새.

“다리가 굵고 못 생긴 것을 야채에 비유해서 뭐라 하지요? 무.”(99.1.9. SBS TV ‘좋은 세상 만들기’ 자막)

“7000~1만원이면 야채요리 원없이 먹겠네”(99.11.5. 동아 ○ 기자 제목:“맨플만 먹나요” 채소고기 “짹짹” 부제, 7000~1만원’은 7000만원~1만원’으로도 읽히므로 7000원~1만원’이라야 좋다.)

“야채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 반찬이 대부분 야채로 교체됐다.”//“---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00.5.3. K2TV ‘병원 24시’ 글·구성 ㄱ 작가 해설 ㄱ 성우. ‘하는 것이다’는 ‘한다’면 족하다.)

“김치는 물론 야채, 과일, 생선까지 ---”(00.11.11. MBC TV ‘경제 매거진’ ㄱ 리포터 (여) 글·구성 ○ 작가)

“지금은 한겨울에도 싱싱한 야채가 넘쳐 ---”(00.12.23.08:50 MBC TV ‘TV 속의 TV’ 중 ‘이윤철의 옛날 TV’ ○ 아나운서(남))

할머니는 --- 야채와 된장만 섭취했다고 한다.”(01.1.31. 동아 속초=ㄱ 기자 제목:100세 넘은 할머니 3명 이산子女 北생존 확인)

--- 된장과 야채를 --- (01.8.18. 문화 5면 ‘인터뷰’의 ‘주말 초대석’ ○ 기자 제목:“화장 벗겨낸 맑은 노래가 생명력”(가수 양희은 인터뷰)

“야채를 드실 때는 ---”(01.3.8.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공동 앵커(여))

“야채나 과일 뿐 아니라 ---”(01.6.10. K1TV ‘취재 파일 4321’ ㄱ 기자(남))

“야채나 곡물로만 식사를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01.6.10.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 (남, 기자))

“--- 야채를 셀 때 단위로도 쓰이는데요, ---”(01.7.17. K1TV ‘바른 말 고운 말’ ㄱ 아나운서(여))

㉔ **빠짱꼬**·파친코·파칭코(바チンコ, ぱちんこ): ‘ぱちんこ’는 원래 ‘ 고무줄 새 총, 구슬을 튀겨서 구멍에 넣는 장치’를 말하는데, 흔히 도박 수단으로 이용되며 손잡이를 눌러 튀는 알을 구멍에 넣는 놀이이다. 언론 매체의 표기도 제각각이고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는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민중2」는, 표제어 아니지만 부록의 ‘외래어 사전’에서 ‘빠짱꼬’로 풀이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파친코’가 옳지만 ‘빠짱꼬’로 굳은 상황이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말이다.

나. 英語

일어 못지않게, 근래 들어 우리말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것은 특히 영어(의 영향력)이다. 이제 두드러진 몇 예를 검토하겠다.

① 東西南北, 北南東西: 이미 지적된 바대로, 동양은 '東西南北', 서양은 '北南東西'의 어순이다. '南東風, 北東風'은 영어식이요, 우리식은 '東南風, 東北風'인데, '貧富'가 영어로는 'the rich and the poor'이고 '紳士淑女'가 'ladies and gentlemen'인 것과 같다⁵³⁾. 전술한 단위 명사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말의 원래 형태를 되찾아야 한다. 영어식의 어순이 우리말에 자리잡은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의 일인데도, 사극에서조차 영어식 어순을 쓰는 일은 작가의 무관심 탓이겠다.

"남동풍(南東風)이옵니다."/"남동풍? 남동풍?"/"그렇다! 남동풍이었다."(01.1.29. K1TV 극 '太祖 王建' 극본 ○ 작가, 극 중 왕건의 謀士(남)와 왕건의 대화/해설(남, 성우), 자막도 '--- 동남풍'이었다.)

② (부정적) 효과: '효과'란 보람이 있는 결과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도 긍정적이기는커녕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도, '영향'은 놔 두고, '효과' 심지어 '부정적 효과'라고까지 한다. 이는 영어의 'negative effect'를 직역한 결과이다. 우리말은 우리말답게 써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 야당 내에서나 부산·경남지역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영향력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00.5.11. 조선 14면 ㄱ 기자 제목:DJ·YS 회동 이후)

"(다시 재건축 규제를 하니, 용적률이 줄어) 분양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00.5.15. K1TV '뉴스 라인' ㄱ 기자(남), 이권 주택 업체나 소비자 다 곤란한 일이니 '효과'가 아니고 '영향'이 정확한 말이다.)

--- 예정이율이 1%포인트 내린 뒤엔 10만8000원(13.7%인상 효과)을 내야 한다.(01.3.21. 동아 ○ 기자 제목:"이달 가기전에..." 종신보험 가입 폭증)

③ 자리매김하다: '자리 매기다'가 아닌 '자리매김하다'는 영어식 말이다.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는 동명사(=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겸한 품사)가 없고, 이에 대응할 만한 말 또한 극히 미미하다. '명사+하다'⁵⁴⁾가 아닌, '자리매김'이라는 명사형에 '-하다'가 붙은 말이라 띄어 써야 어색하다. '자리다툼(=좋은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자리보전(-保全)/자리바꿈/자리를 다투다'와 '자리매김/자리를 매기다'와 견주어 보라.

--- 북한 체제를 '신(新)전체주의'로 자리매김하면서 철저히 비판해 ---(99.10.16. 동아

53) Cf. 유만근, "사극 '王建'에서 잘못 쓰는 말들", 주 40), 38쪽.

54) 별고(주 2)(2002a))로 검토한 '(명사+)하다'를 참고 바란다.

'金學俊 칼럼', '자리 매기면서'가 자연스럽다.)

실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99.11.5. 동아 ㄱ 기자 중간 제목)

--- 오는 100년의 숙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99.12.31. 조선 제목:"100년의 뒤안길에서")

"방송통신대학이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00.7.13.21:40 K1TV 뉴스9 뉴스 ㄱ 기자(남))

---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01.10.6. 중앙 2면 '종합' ㄱ 기자 제목:"金대통령 묘한 말... 진의 뉘까")

"--- 자리매김하는 것은 ---"(01.11.17.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남))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도우미 자리매김//--- 실질적 도우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01.12.21. 제주 10면 '경제' ㄱ 기자 제목과 본문)

④ 좋은 아침, 벼룩 시장 등:'상쾌한 아침, 도떼기 시장,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좋은 아침(good morning), 벼룩시장(flea market), 뜨거운 감자(hot potato)' 같은 영어식 표현(직역)이 굳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⁵⁵⁾.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으레 '좋은 아침(입니다)!'이라고 인사한다. '상쾌한 아침(입니다)!'도 좋지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식의 인사법이 자연스럽게 품위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00.4.8.07:40 K2TV 프로그램명)

예, 좋은 아침입니다(99.7.19. 동아 ㄴ 기자 제목)

⑤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일본의 사전을 참고한 일부 한영 사전은 'sustainable'을 '지속 가능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지속할 수 있는'이 있는데도, 정부의 위원회(CSD)까지 이 말을 쓰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경영학'(電通總研 지음, 제진수 옮김)(99.4.26. 교수 155호 '신간 안내' 부제)

지속가능한 제주개발을 위한 토론회(00.3.31. ㄱ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토론회 주제)

---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00.6.27. 조선, 영월댐 백지화 관련 기사)

"--- 취재팀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01.7.20.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ㄴ 아나운서(남)와 ㄱ 기자(남))

55) Cf.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50쪽.

‘지속 가능한 대전을 위한 녹색에너지학교’ 수강생 모집(01.12.7. 한겨레 29면 ‘사람’의 ‘알림’ 제목)

⑥ 풀뿌리: 근래 ‘서민, 민중’의 뜻으로 쓰는 ‘풀뿌리(grass roots)’도 영어의 직역이다. 국어 사전(「국어연구원」)의 표제어이긴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도 수입(번역)한 말일 것이다. ‘풀뿌리’는 ‘풀의 뿌리=草根’(「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등)이다.

이로써 풀뿌리 출신들이 --- (00.4.14. 조선 스 기자 제목: “떠오른 新人들”)

⑦ 순화해야 할 다른 말들⁵⁶⁾: 라켓(racket)→채, 리얼 타임(real time)→실제 시간/제시간/실시간⁵⁷⁾, 링(ring)⁵⁸⁾·림(rim)⁵⁹⁾→(바구니) 테, 미니 스커트(mini skirt)→몽당치마, 부킹(booking)→예약, 브랜드(brand)→상표/상품, 브로커(broker)→거간(꾼)/중개인⁶⁰⁾, 블록(block)→집단/구역, 선글라스(sunglass)·라이방(Ray Ban)⁶¹⁾→보안경, 색안경, 센서(sensor)→감지기, 세일(sale)→할인/에누리, 스카치 테이프(Scotch tape)⁶²⁾→끈끈이띠(「민중2」)/풀띠,⁶³⁾ 스탠드(stand)→관중석//册床燈, 스테

56) 남기심·김하수, [당신은 우리말을 새롭고 바르게 쓰고 계십니까](샘터, 1995), 임한복, “매일경제, 박갑수 교수 초빙해 전 기자 재교육/기사의 문체와 표현을 다듬자”(「말과 글」 제71호, 한국교원기자협회, 1997)에서 가린 말과 필자가 덧붙인 말을 보인다.

57) ‘실시간(=실제 경과되고 있는 시간과 같은 시간(「신어」))’은 신조어이나 일반화한 말이다.

58) (농구) 둥근 테/바구니 테(「국어연구원」/「한글학회」), 농구대의 수직판에 공을 던져 넣도록 고정되어 있는 둥근 테. 이런 풀이가 없는 국어 사전(「민중1」, 「민중2」, 「새 우리말」 등)도 있다. 영한 사전(「뉴우 월드 英韓大辭典」(금성출판사), 「뉴에이스 英韓辭典」(시사영어사), 「엘리트 영한사전」(시사영어사) 등)에 따르면, ‘농구대의 테두리 쇠(쇠 테두리)’는 ‘ring’이 아닌 ‘rim’이다.

59) 림을 붙잡으며 --- (00.4.16. 조선 AP연합 농구 경기 사진 설명), ‘림(rim)’은 원래 수레 바퀴의 테를 이루는 고리 모양의 부분을 이르는 말인데, ‘농구대’의 ‘림’도 ‘테’ 정도면 좋을 듯싶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도 ‘림’을 ‘농구대의 바구니나 테’로 풀이한 국어 사전은 아직 없다.

60)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노릇(「한글학회」)이 ‘중개’인데, ‘仲介(ちゅうかい)’는 재검토해야 할 말이다.

61) ‘라이방’은 선글라스의 대명사인 ‘레이밴(Ray Ban)’을 베트남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1960~70년대 베트남에서 보내온 병사들의 사진에 이 제품이 많이 나와 사람들은 라이방이라고 부르게 됐다(cf. 01.10.29. 중앙 46면 ‘GO판 영화/방송’ ㅂ 기자 제목: 경쾌하고 애잔한 코미디 ‘라이방’).

62) 투명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의 상표명임.

63) ‘풀띠’는 ‘草本帶(=주로 풀들만 자라는 고산식물 지대)’를 이르는 말(「한글학회」)이기도 하니, ‘끈끈이띠’가 더 좋을 듯하다.

이플러(stapler)·호치키스(Hotchkiss)⁶⁴→박음쇠, 아울렛(outlet) 매장→재고 상품
 할인점, 아웃소싱(outsourcing)⁶⁵→외부 조달, 온라인(on-line)→전산망, 이벤트
 (event)→행사, 인프라(infra)→사회간접자본/기반시설, 커미션(commission)→수수
 료/구문, 코팅(coating)→보늬(밤 따위의 속에 있는 얇은 겹질), 퍼센트(percent)→
 퍼치, 핀트(네 brandpunt)→초점 등.

IV. 結 論

언어는 단순한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정신)를 담는 그릇이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
 을 좌우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에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글을 사용해야 사회도 더
 맑아진다고 믿는 필자는,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물로 우선 방송의 발음, 국어 사전
 의 발음 표기, 표준 발음법 보완에 대해 논술한 데 이어 제주 지역 신문을 중심으
 로 틀리거나 어색한 우리말글을 검토한 바 있다. 계속해서 우리말에 스며든 일
 (영)어의 잔재를 논의했는데, 제한된 지면 관계로 '외국(래)어 오·남용, 譯語體,
 非文·惡文, 문장의 호응, 문장 부호' 등의 여러 문제는 별론하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보
 여도 또 들려도 괴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가 열른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
 의하였다. 특정 언론 매체나 특정인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이니, 필자의 충정을 이
 해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는 상황은 우리말글을 더 어
 렵게 하지만, 언론 매체 종사자는 우리말글의 길잡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바른
 우리말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우리말에는 무의식중에 쓰는 일어
 (의 찌꺼기)가 참으로 많은데, 일어의 잔재를 씻고 외국(래)어를 좋은 우리말로

64) '호치키스'는 상품명이니, '스테이플러'가 좋다.

65) 경리, 인사, 영업 따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 비용을 줄이고, 그 분야에 종사
 하던 인력을 다른 개발 사업에 활용하여 수익을 올림, 또는 그러한 전략(「신어」), 자체
 에서 하던 일을 외부 용역으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경제 용어나,
 아직 국어 사전에는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말이다.

바꾸는 일에는 언론의 소임이 매우 크다.

이 자리에서 문인, 학자, 지식인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비판 정신을 지니고 문화를 창조·전달·응용하는 일은 바른 언어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본론에서 문인이거나 학자의 예를 든 것은 이 때문이다.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 사용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교사의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도 당부한다. 덧붙여, 신문의 바른 우리말글을 위해 애쓰는 전국의 교열부 기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2000년 신어」, 2000.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국어학회 편, 「한글맞춤법·표준어사전」, 국어교육연구소, 199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편, 「韓國漢字語辭典 1~4」, 1992~1996.
대한항공, 「모닝캄」, 2001.6.
문교부, 「국어어문규정집」, 1990.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북한 사회과학 연구원,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제8판), 금성출판사, 1988.
연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주) 두산 동아, 1998.
운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초판 제4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국어대사전」(제2판 제1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뉴에이스 英韓辭典」, 금성출판사, 1993.
李家源·張三植 편, 「詳解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李瑢默 편, 「新中國語辭典」, 민중서림, 199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島部落誌」, 1991.
조재수, 「남북한말 사전」, 한겨레신문사, 2000.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3판, 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림, 1999.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5판, 전면개정판), 민중서림, 2001.
- 편집국 편,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 편집국 편, 「뉴우 월드 英韓大辭典」, 시사영어사, 1973.
- 편집국 편, 「엘리트 영한사전」, 시사영어사, 1996.
- 편집국 편, 「옛센스 英韓辭典」, 민중서림, 1999.
- 편찬위 편, 「英韓大辭典」, 시사영어사, 1995.
- 편찬실 편, 「中韓大辭典」,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제351호, 2000.3.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 「한글 새소식」 제300호, 1997.8.
- 三岡建二 外, 「國語辭典」, 集英社, 1993.
- 新村出, 「廣辭苑」, 岩波書店, 1991.
- 安田吉實·孫洛範 공편, 「옛센스 韓日辭典」, 민중서림, 1999.
- 공편, 「옛센스 日韓辭典」, 민중서림, 1999.
- 津波高志, “제주도에 있어서의 제사의 역할”(제주학회 제18차 추계 전국학술대회), 2001.
- 경향·동아·문화·조선·중앙·한겨레·한국·전북·교수신문·대한교원신문·제대신문·KBS TV·MBC TV(Radio)·SBS TV·제민·제주 등.
- 권오문, 「이것만 알면 바른글이 보인다」, 생각하는 백성, 1997.
- 강신항, “일본 한자어”, 「새 국어생활」 제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김성동, “우리 말 우리 글 속 일본식 용어 999가지”, 「신동아」, 1998.8.
- 김윤우, “身土不二의 어원과 사상 再考”, 「말과 글」 제76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8.
- 남기심·김하수, 「당신은 우리말을 새롭고 바르게 쓰고 계십니까」, 샘터, 1995.
- 박숙희,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한울림, 1996.

- 朴在陽, “닭도리탕의 語源”,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6.
-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 유만근, “굴착기·굴삭기→과내미”/“사극 ‘王建’에서 잘못 쓰는 말들”, 『말과 글』 제85호,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 이수열, 『우리글 같고 닦기』, 한겨레신문사, 1999.
- , 『우리말 바로 쓰기』, 현암사, 1999.
- 임한복, “매일경제, 박갑수 교수 초빙해 전 기자 재교육/기사의 문체와 표현을 다듬자”, 『말과 글』 제71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 장진한, “단위명사 통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 정광,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 국어생활』 제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鄭龍起, “‘마음의’ 과 한-漢 융합”, 『말과 글』 제69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6.
- 정재도, “셈술말과 셈날말의 어울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